



급격한 변화 속에서 가치관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 전도에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19년 11월 2일 (토) 제 1753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당신도 '디지털 바벨론' 에 유배돼 있다!

바나리서치, 과도한 정보홍수시대, 그 경향들과 유배자들 설문 통해 밝혀

“디지털 바벨론 시대(digital Babylon)”에 유배돼 있다! 바벨론 포로 시절 당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경험했던 급진적인 변화를 현재 젊은이들이 경험하고 있다. 너무나도 다양한 문화 세계 속에 노출되었고, 믿음과 영성에 다양한 세계관과 가치 체계를 보이는 사회에 우리 젊은이들이 속해 있다. 젊은 세대는 너무도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일상을 보내게 됐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나아가서는 인간에 대한 정서가 제각각 다른 시각으로 넘쳐나고 있는 시대다. 따라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신앙을 지키며 사는 방법에 대한 질문은 대단히 어려워졌다. 그리스도의 믿음과 확신을 팔아먹고 있는 요즘 시대에 신앙을 지키는 것은 점점 더 어렵게 됐다. 최근 연구자료들이 현재 우리 문화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례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

리는 현실의 이슈들을 명확하게 분석해 성경적인 해석을 덧입힌다면 그리스도인들, 특히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볼게 된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볼 때 인간의 삶에서 새로운 것은 실제로 하나도 없다. 인간의 정체성 또한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에게 구원자(Savior)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여전히 동일하다. 다만 이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현대인들은 전혀 없이 많은 양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방대한 자료를 더욱 빨리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이 현상이 오늘과 같은 색다른 현실을 초래하고 있다.

바나리서치는 이러한 현실을 '디지털 바벨론'이라고 부른다 (Digital Babylon: Our Accelerated, Complex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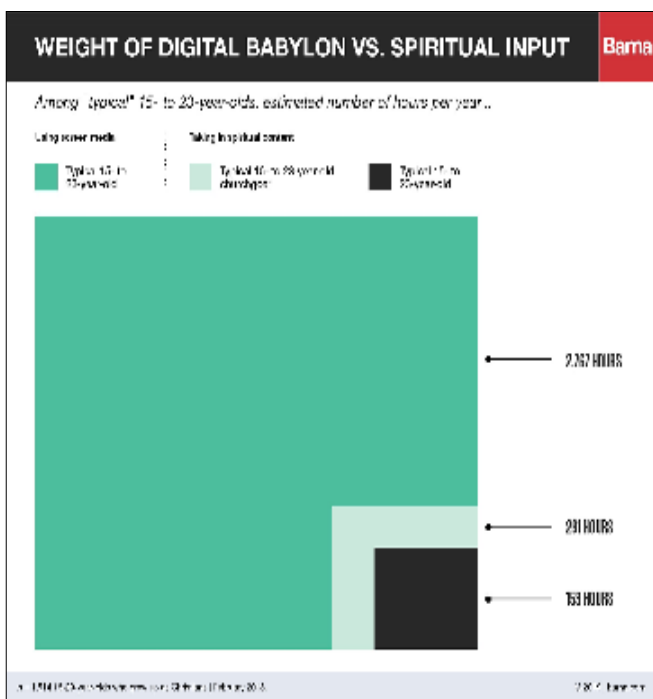
바나 리서치 회장, 데이빗 키너맨은 '디지털 바벨론' 시대 상황을 규정하는 3가지 경향을 말해준다: ①접근성, 어디서나 WIFI를 이용해 많은 정보를 동시에 볼 수 있다 ②소외, 우리의 삶에 의미와 울타리가 됐던 전통들이나 제도들에서 ③권위의 상실, 기존 제도들이나 전통들에 대해 점점 더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무한한 접속, 점점 더 깊어지는 소외 그리고 권위의 위기로 상징되는 '디지털 바벨론'시대에 살고 있다.

또한 '디지털 바벨론'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①유목민들(Nomads):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정작 교회공동체에는 관심이 없다. 따라서 자신들에게 맞는 신앙 표현과 의미를 찾아 교회를 떠나 "유목"하고 있다.

②탕자들(Prodigals): 완전



히 자신들의 신앙을 저버린 젊은 세대다. 이들은 과거에는 신앙을 갖고 있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③유배자들(Exiles) 또는

습관적 교인들(Habitual churchgoers): 기독교 신앙과 갈등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은 교회공동체에 남아 있는 부류는 바로 "유배자들"이다. 이들은 한마디로 교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 그리고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완전히 접촉점을 상

실한 이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일상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④'끈질긴 제자들(Resilient Disciples): 20-30대로 교회와 일상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에 오며, 지금이 유배적 상황이라고 부르는 현실에 대한 뚜렷한 의식을 갖고 산다. 즉 예수를 믿는 신앙이 어떻게 그들을 둘러싼 세상과 연결돼 있으며 또 실천돼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고작 10%에 불과하다.

그러나 바나 리서치가 최근 발견한 추세 중 흥미로웠던 점은 거듭났다고 자처한 최근의 젊은이들이 베이비붐 시대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보다 오히려 이웃 전도에 더욱 힘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이 젊은 신앙인들에게는 오늘의 정보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

(5면으로 계속)



하나님의 돈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라!

CT, 재정전문가 래리 버켓의 금전 사용 지혜 소개

우리는 금전관리의 기본에 대해 익히 들어왔다. 현금하라, 저축하라, 지혜롭게 지출하라, 빚을 지지 말라, 예산에 맞춰라 등등. 주일 아침 일 정액을 헌금함에 넣는 것 이상의 큰 의미를 지닌 멋진 표현인 "청지기 정신"이란 바로 이런 것들이 모인 것이다.

"청지기 정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나은 금전관리법을 가르쳤던 래리 버켓(Larry Burkett, Christian Financial Concept 설립자)은 수년간 그 해답을 제시해왔다. 청지기 정신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태도에 관한 것이다. 래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Whose Money Is It, Anyway? How you handle your cash says a lot about what you value the most).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돈을 자기 것으로 생각한다. 현금 바꾸기에 넣는 일부만 하나님의 돈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신다. 왕이요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내 것이라 주장하는 돈을 포함한 모든 것을 소유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돈

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아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다섯 단계가 도움이 될 것이다.

1단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라

(4면으로 계속)



"성공이 낮은 오만"



시론 최해근 목사



한국선교 2 역사를 찾아서 손상우 목사

ATS와 ABHE 공인된 월드미션대학교. 신학 / 상담학 / 음악학 / 간호학 / 유아교육 / 가정사역 / NGO사역. 캠퍼스 | 온라인

할렐루야 백화점.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뉴저지 Tel. 201)346-003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labookusa.com / cbc0191@hotmail.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역 상담, 영성훈련, 생가독집 주문 제작, 탁월, 선불 주문 제작. TEL. 714.830.2211 | Fax. 714-330-8080 | bibvestoro@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신앙로회신학교

www.rptseast.org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신앙로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역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학과

대학부	신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학원	목회학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문의처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신앙로회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 발행인 칼럼 ●

선택의 기준



김성국 목사
(켄즈장로교회 담임)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얼마 전에 들은 참혹한 속보(悲報)에 모두들 마음 아프셨으리라. 지난 10월 23일 영국 남동부 엑시에서 39명의 동사체(凍死體)를 실은 냉동 컨테이너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얼마나 놀라셨는가.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의 갈망이 지나쳐 그런 자리라도 잠시 들어가겠다고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것인지, 어떤 배후가 있는 자들의 탐욕이 그들을 속여 그곳으로 내몰았는지 머지않아 수사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 어떻게 애통하다. 이번 사건을 떠나 자기 욕심이 선택의 기준인 사람이 있고 공공(公共)의 이익이 그 기준인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안다. 그들이 빚어가는 세상이 사뭇 다름도 본다. 선택은 대부분 짧게 이루어지지만 모든 선택의 여파(餘波)는 길고 길다. 과거는 결코 변하지 않지만 미래는 선택에 따라 확연히 달라진다. 이런 말들의 위력적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는 선택은 어디나 있다. 룯과 룯의 각기 다른 선택도 그렇다. 그들의 이름은 비슷하지만 선택은 전혀 달랐다. 아브라함의 조카 룯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였고 나 오미의 머느리 룯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였다. 그들의 선택의 기준은 각각 달랐고 그 결과는 그들의 족보(族譜)를 엄청 달라지게 했다.

“훗날, 내가 가장 후회할 것은 아무 것도 시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훗날에 아무 것도 시도하지 않은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 직장이라는 익숙한 길을 떠나 아마존닷컴 창업의 길을 선택하였다. 제프 베조스(Jeff Bezos)의 이야기이다. 그의 선택의 기준은 자기가 80세가 되었을 때 지금을 돌아보며 후회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였다.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는 어땠을까.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 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그의 시를 읽어보니 그의 선택의 기준은 “사람이 적게 간 길”이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원하는 것”인지 “내가 해야 할 것”인지 헷갈리기도 한다. 전자(前者)가 허접함을 담고 있다면 빨리 포기하는 것이 옳다. 후자(後者)가 사명이라면 함부로 버려선 안 된다. 포기와 끈기의 선택 기준은 사명인가 아닌가이다. 살다보면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다.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급하게 산다고 잘 사는 것은 아닐 것이다.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 마르다는 “급한 일”이 선택의 기준이었고 마리아는 “중요한 일”이 그 기준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과 그의 교제라는 중요한 일에 집중하였고 그의 선택을 예수님이 칭찬하셨다. 급한 일은 끊임없이 다가온다. 바쁜 세상 속에서 중요한 일을 구분하여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예수님께 칭찬 받는 길이다.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을 지혜를 선택한 솔로몬도 받았다. 모세는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선택에 상 주실 이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만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선택이라는 방법을 즐겨 사용하신다. 구원의 선택 기준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이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가 갖는 의미는 너무나 깊고 오묘(奧妙)해서 솔직히 다 알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필요한 일군을 선택하는 공통된 기준은 보다 선명히 알 수 있다. “그의 마음에 합한 자”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해도 좋겠다. 하나님의 기준에 갈렙도 닮았도 합했다. 그들이 살아낸 삶은 가히 초월적이라 할 수 있다.

나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 나지막이 불러 본다. “어느 민족 누구거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성공이 낳은 오만” 이 쇠퇴 첫 단계

CT, 고든 맥도날드, 짐 콜린스의 “강력한 조직의 몰락” 통해 대형교회 몰락 이유 설명

그들의 몰락을 막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고든 맥도날드 목사는 신앙에 기초한 목회자 리더십을 수행해야 하는 목회자들이 배울 수 있는 사람들로 피터 드러커와 짐 콜린스를 손꼽는다. 드러커가 경영을 리더십으로 격상시켰다면, 콜린스는 드러커의 통찰력을 넘어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처럼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콜린스는 조직이 실패에 빠져드는 과정을 다섯 단계로 나눠 설명한다. 각 단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위험해지는 잘 알려진 비탈길이며, 지도자가 현재 진행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피할 때 문제는 더욱 악화된다.

조직이 쇠퇴하는 첫 단계는 바로 “성공이 낳은 오만”이다.

“성공만 연구해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콜린스는 딱 잘라 말한다. 비즈니스 리더십이나, 심지어는 교회 리더십 관련 책들 가운데 실패의 원인을 탐구하는 책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따라서 맥도날드 목사는 콜린스와 그의 연구팀이 내놓은 “강력한 조직의 몰락(How the Mighty Fall)”이란 책을, 성경에서 실례를 들어가며 어떻게 대형교회들이나 인기가 있고 유명세를 타는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단번에 몰락했는가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How a Mighty Church Falls: What it takes to prevent congregational decline).

역시 밋세바와 부정한 관계에 빠질 때 오만에 사로잡힌다. 약 50년간 이스라엘을 통

을 만들어 항상 확인하고, 영적인 ‘흐름’을 파악하라. 지금은 작지만 그대로 방치할 경

였다. 과욕은 조직을 처음 만들 때 기초로 했던 핵심 원리를 무시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조직의 영혼을 팔아서 까지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팽창하는 것이다.

나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 아니었나 싶다. 바울은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해 그들을 권면했다. 대조적인 어구로 자신을 비하하는 대신에 그들의 과도한 욕심을 꼬집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고전4:8, 10).

무리한 욕심은 우리가 현재 어떤 것을 잘하고 있을 경우, 다른 것도 똑같이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으리라는 유혹에서 비롯된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했다.

지도자 중에는 사업과 관련된 것이든 혹은 신앙과 관련된 것이든 간에 조직의 성장



2010년, 교회설립 55년, 예배당 헌당33년 만에 총자산 5천만 달러, 부채 총1억 달러를 신 고하며 파산보호 신청했다가 2012년 카톨릭교회에 매각된 수정교회 과거 예배 장면

과도한 욕심, 비판적 정보 무시, 묘책 찾기, 각 질문 답하기...

쇠퇴 그 시작은 언제? 누가 그 숨은 신호 놓쳤나? 누가 기초신념 무시했나? 누가 잘못된 정보해석과 거짓말했나? 누가 당장의 성공 묘책 요령 추구했나?

책이 성공을 약속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성경 저자들은 실패를 기록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다. 신구약 성경은 위대한 성공담과 더불어 개인의 실패 혹은 공동체의 실패를 자주 들려준다.

성경은 자기 과신, 즉 실패와 파멸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무모한 자만(콜린스가 “지나친 자부심”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언뜻 보면 겸손이 부른 성공담보다 오만이 낳은 실패담이 더 많지 않나 싶을 정도다.

다음은 몇 가지 예들이다. 거인 골리앗과 그의 동족 블레셋은 목동 다윗의 도전을 받아들였을 때 지나친 자만으로 꺾자 있었다. 훗날 다윗

치한 웃시아 왕은 성경이 그를 두고, “그가 강성하여지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대하26:16)라고 말할 만큼 깊은 자만에 빠졌다.

위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통제 아래 있는 어떤 것도 잘못되리라고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들은 성공하기에 충분한 자들이었지만, 자신이 실패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몇 년 전 쓰나미로 인해 태평양 연안의 많은 나라가 재앙을 당한 후, 과학자들은 쓰나미가 발생시키는 진동을 조기에 포착하는 감지 장치를 해저에 설치했다. 이것이 바로 조직의 지도자가 취해야 할 행동이다. 심각한 문제를 미리 신호해줄 사람을 찾아두고, 구체적인 점검 목록

우 반드시 커질 문제가 소리 없이 태어나 자라나지 않도록 자기 과신과 오만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두 번째로, 콜린스는 조직의 쇠퇴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문제가 다가올 위험을 모르고 안주하는 자기만족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떤 면에서 자기만족과 정반대인 과도한 욕심이 진정한 문제

과 확장에만 눈이 먼 자들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든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 보려는 지도자에게서 자주 나타나는데, 그들이 능력을 입증해 자존심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결과를 낳든 개의치 않고 조직을 더욱 확장시키는 것이다.

모든 것을 더욱 확장하고 성장시켜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일관된 개념이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213) 674-7982 (대표) (323) 665-0009 (광고국)
·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 (718) 886-4400 (대표) (718) 886-4424 (편집국)
· Fax (718) 886-0074 (대표)
·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 (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0, July 6, and Nov 30.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 및 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어 _____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__년__월__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674-7982, (323) 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Fax. (718) 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담임목사청빙

스포켄한인장로교회는 워싱턴주 스포켄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열정적으로 함께 하실 담임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 **지원자격**
 1. 미국장로교(PCUSA) 소속이거나 가입에 적합한 분
 2. 정규 신학교를 졸업,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5년 이상의 목회 경험(부목사 포함) 있으신 분
 3. 미국 거주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4. 한국어와 영어 소통이 가능하신 분
- **제출서류**
 1. 이력서
 2. 본인 및 가족소개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포함)
 3. 최종 학위 증명서 및 목사 안수 증명서 각 1부
 4. 최근 6개월 이내의 설교 동영상 2회분 (CD / DVD / 혹은 홈페이지 링크)
- **제출처**

이메일 (Preferred): chanwoo1253@gmail.com
연락처 (509) 475-6444 (어대경 청빙위원장)
우편주소: 223 S. Hatch St., Spokane, WA 99202
- **제출마감** 2019년 11월 15일
- **기타**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스포켄한인장로교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Spokane
1727 E. Pacific Ave. Spokane, WA 99202
www.spokanechurch.com

“성공이 낳은 오만” 이 쇠퇴 첫 단계

(2면에서 계속)

윗을 이어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솔로몬을 보자. 처음에는 부족한 ‘지혜’를 구할 만큼 ‘총명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그의 요구를 들어줬고, 그렇게 초기 솔로몬의 삶은 놀라운 성공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차차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면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다. 더욱 많은 말과 병거, 재물과 후궁을 원했다. 일찍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 3가지를 멀리하라고, 그것들이 물고 오는 위험을 기억하라고 경고했음에도 말이다. 솔직히 말하면, 솔로몬은 ‘지혜’를 멀리 떠나 ‘더욱 많은 것’ 쪽으로 점점 더 다가가 나중에는 그곳에 눌러 앉아 살았다.

나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위임하신 사명이 그들의 조직을 더욱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자 삼는 것이었다는 사실에 커다란 감명을 받는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이 제대로 훈련받았을 때만 어느 성읍과 마을에서도 이 운동을 아무런 문제없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아셨다. 예수님께서 우려하신 것이 지금까지 수 세기에 걸쳐 반복돼 왔다. 우리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기독교 운동을 조직화하고, 중앙집권화하고, 과대 선전하는 일에 지나친 관심을 기울여오지는 않았는가.

세 번째 단계는 지도자와 조직이 비판적인 정보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고, 귀에 거슬리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서 나타난다.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않고 회피하면 결국 조직은 심각한 상처를 경험하게 된다.

내가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 가운데 하나(왕상22장, 단 한 장으로 된)는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나눈 대화다. 두 왕이 길르앗 라못과의 전쟁을 상의하기 위해 만났는데, 경건한 왕 여호사밧은 “우리가 먼저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자”고 제안한다.

아합은 제안을 받아들여 선지자 400명을 불러 그들의 의견을 구했고, 그들은 하나같이 전쟁을 치르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아합이 부른 자들은 거짓 선지자였고 결국 아합은 자기 소견에 부합하는 의견을

이끌어냈다. 의심스러운 생각이 든 여호사밧은,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와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하고 물었다.

아합은 매우 주목할 만한 답변을 했다.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다.”

미가야가 두 왕 앞에 섰을 때, 그는 정확하게 아합이 예상한 말을 한다. 아합과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얻을 결과를 매우 분명하게 알려준다. 그의 예언은 적중했고, 결국 아합은 전장에서 죽는다.



폴린스는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하는 것을 매우 우려한다. 아마 교회가 직접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떠도는 말이나 선입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알면 더 많은 염려를 나타낼 것이다.

그렇다, 나도 리더십을 행했던 초기에 다음처럼 시작하는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았다. “그들이 말하는데...”, “머질 전에 들은 애긴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느끼기를...” 등이 그 말들이다. 나는 이러한 “말들”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것들인지도 식별해 나가면서 성장했다.

나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부터 가장 소중한 정보를 얻었다. 그들은 질문을 미리 준비하고 공동체를 대화 속으로 질서 있게 참여시키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이들이었다. 이렇게 잘 준비된 사람들과 그들이 이끄는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성도들의 의지와 믿음, 상황이 어떠한지 알 수 있었고, 장차 교회가 내디딜 발걸음을 정할 수 있었다. 물론 성도를 일대일로, 소그룹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직접 그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은 없

다. 폴린스가 말하는 네 번째 단계는 “조직이 쇠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묘책을 찾는 것”이다. 아직 입증되지 않은 제품이나 이미지 개선에 기대를 갖거나, 훌륭한 컨설턴트를 고용하거나 아니면 홀연히 백마를 타고 나타나 모든 문제를 한방에 해결하는 새로운 영웅을 기다리는 것이 좋은 예다.

성경에서 이러한 예를 찾아 보려 했을 때, 떠오른 인물이 사울 왕이다. 다른 나라처럼 되고자 왕을 간절히 원했던 이스라엘은 훌륭한 가문 출신에, 외모와 언변이 뛰어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마치 프로 스포츠 팀이 슈퍼스타급

선수 영입하면서 챔피언 자리를 따 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은 희망에 도취됐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 니이다”(삼상8:19, 20). 이것은 마치 문제 해결을 위한 묘책을 발견한 것처럼 들린다.

묘책은 종종 실제로 효과가 있다. 그러나 짐 폴린스는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암시한다. 이스라엘의 묘책으로 등장한 사울 왕은 한때 잠깐 형통했지만 이스라엘을 안정된 왕국으로 건설하고 그들의 위대한 잠재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내적인 자질을 갖추지는 못했다. 사울은 백성의 압박이 커지자 숨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울에 대한 모든 지지를 철회하셨다. 사울이 자기가 승리를 갈망했던 전쟁터에서 전사한 것은 매우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 역시 교회가 퇴보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승리를 갈망했던 때가 있었다. 어떻게 하면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게 할 것인지, 그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본질적으로 생활이 변하게 할 것인지에 관심을 갖는 대신, 일시에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 하루아침에 부흥하는 교회, 특별한 프로그램, 유능한 교회 직원 같은 단어를 만지작거리 는 것이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완벽하고, 감동적인 설교를 준비하려 했던 날이 기억난다. 지금 나는 그 노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다. 뛰어난 설교를 하고 실력 있는 인재를 채용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해도 그것들은 요령을 부려 탈출구를 모색하는 것에 불과하다.

감사하게도 내 주위 사람들이 처럼 나는 요령을 부려봤자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다. 우리가 사람에게 다시 관심을 기울이고, 잘 배우는 사람을 지도자로 훈련시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

폴린스는 조직이 요령을 부리면 다섯 번째 단계에 이른다 고 말한다. 교회 같은 조직에서 믿음과 영성이 마르는 것은 기업에서 현금이 바닥나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내가 다시는 오지 아니하리라”고 다짐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분은 머지않아 예루살렘 성전이 돌무더기와 다름없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얼마 전 웨일즈의 한 교회 건물 앞에 서있었는데 교회 문에 “매매”란 광고문이 붙어 있었다. 주춧돌을 보니 웨일즈의 부흥이 절정을 달했을 때 건축된 것이었다. 지금은 주위에 잡초가 무성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

조직이 죽음으로 접어들었다면 그 시작은 언제였을까? 누가 그 숨은 신호를 놓쳤을까? 누가 조직의 기초가 되는 신념을 무시했을까? 누가 정보를 잘못 해석하고 거짓된 말을 전했을까? 누가 당장의 성공을 위해 묘책이나 요령을 추구하자고 했을까? 중요한 질문들이다. 무시하면, 강력한 조직도 반드시 나락으로 떨어진다!

폴린스는 조직이 요령을 부리면 다섯 번째 단계에 이른다 고 말한다. 교회 같은 조직에서 믿음과 영성이 마르는 것은 기업에서 현금이 바닥나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내가 다시는 오지 아니하리라”고 다짐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분은 머지않아 예루살렘 성전이 돌무더기와 다름없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얼마 전 웨일즈의 한 교회 건물 앞에 서있었는데 교회 문에 “매매”란 광고문이 붙어 있었다. 주춧돌을 보니 웨일즈의 부흥이 절정을 달했을 때 건축된 것이었다. 지금은 주위에 잡초가 무성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 조직이 죽음으로 접어들었다면 그 시작은 언제였을까? 누가 그 숨은 신호를 놓쳤을까? 누가 조직의 기초가 되는 신념을 무시했을까? 누가 정보를 잘못 해석하고 거짓된 말을 전했을까? 누가 당장의 성공을 위해 묘책이나 요령을 추구하자고 했을까? 중요한 질문들이다. 무시하면, 강력한 조직도 반드시 나락으로 떨어진다!

시론

성경을 듣고 세상을 보며...



최해근 목사 (홍고메리교회)

2020년 11월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하고 긴장되는 선거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선 베도 오로크 후보자가 있습니다. 이 분은 2016년 텍사스 주 상원후보로 나왔다 낙마했습니다. 하원으로는 3번의 경력이 있지만 상원에 도전하여 선출 받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 분이 대통령 후보자로 나서면서 이번 에 깜짝 놀랄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교회나 비영리기관, 학교에 대해 면세특권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겠지만 상당히 과격하고 미국 헌법에 보장된 종교와 정치의 분리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와 전혀 맞지 않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지난 6월 중순, 캘리포니아에서는 ACR-99라는 결의안이 주하원에 상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동성연애자나 성전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 자신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성으로 살아가도록 상담하고 치료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은 성 소수자를 정상적인 이성애자가 되도록 돕는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결의안은 캘리포니아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물론 결의안이기에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은 아직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구체적인 법안을 제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대의 흐름 가운데 유별나게 성(性)과 관련된 내용이 교회와 심각한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난의 문제, 전쟁의 문제, 빈부의 문제 등과 같은 교회와 국가가 고민해야 할 많은 주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주제보다 성(性)과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 교회의 미래가 협착하고 국가의 법과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어두운 시대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앞에서 신앙인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이런 정보들을 바르게 알고 알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이 주(州)에 누가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이끌어가고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알리는 것입니다.

둘째, 바르게 우리 자신을 무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동시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性)과 관련된 비성경적이고 반교회적인 정책들이 나오기 훨씬 이전인 2005년 무렵부터 일부 교단을 시점으로 오늘의 정치적 흐름을 가능하게 해준 결정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신앙인들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도록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2004년 미국장로교(PCUSA, Presbyterian Church U.S.A.)는 총회에서 법무부가 동성 간의 결합이 결혼에 준하는 효력을 갖도록 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고 2005년 연합그리스도교회(UCC, United Church of Christ)가 총회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지지하기로 결정한 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셋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구체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고맙게도 미국은 투표를 통해 이런 모든 것들이 결정됩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신앙인으로서의 투표를 감당할 때 비뚤어져가는 시대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패한 시대’라고 욕하면서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그는 부패한 시대에 동참하고 있거나 자의든 아니든 그런 부패한 사상을 지원하게 됨을, 그것도 자신의 세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됨을 인식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거를 통해 또렷한 신앙인의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대해져야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16:33)는 말씀을 기억하며 흐트러짐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는 시대를 바라보며 거대한 영적 대각성이 이 땅에 일어나도록 앞다투어 기도하며 일어나 주의 나라를 위하여 땀 흘려 뛰어가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하며, 살 롬....

thechoi82@yahoo.com

CHIASMUS PARALLELISM

교차 대구법

성경에 많이 분포된 히브리인들의 문장표현법

Chiasmus Parallelism

χίασμα

- 교차 대구 구조에 관한 한국 처음 펴낸책
-성경에서 52개의 사례를 추려 설명
(1년 넘게 설교준비할 분량)

책 공급처 - 기독교 서적 (323)737-7699
성명의 말씀사 (714)530-2211

최기태목사 저

■ 전도사, 신학생에게는 무료 증정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공산 사회주의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완전 무상 분배의 사회주의 나라를 창조하셨다. 모든 소유권과 지배권을 영구 무상으로 임대해 주셨다. 이곳이 바로 지상낙원인 에덴동산이었다. 완벽한 환경... 무궁무진한 자원들... 차고 넘치는 먹거리들... 알몸으로 살아가도 주책란을 모르는 순수한 자유 해방구! 미움도, 욕심도, 싸움도, 늠름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완전한 유토피아의 땅! 오직 인간의 유일한 사명

은 하나님만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일 뿐이었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의지를 오용함으로 그만 연약을 파기하고 말았다. 가시덤불과 영경귀로 뒤덮인 실낙원에서 종일 땀을 흘려야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다. 인간 타락은 자연 환경과 동식물까지도 동반 타락을 했다. 더위와 추위가 가뭄과 홍수까지 불러왔다. 세상질서는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법칙만으로 유지되었다. 시기

와 미움이 살인과 전쟁을 불러들였고 씨족들이 뭉쳐 부족으로... 온 인류가 하나 되어 하나님 대적하려고 바벨탑을 쌓다가 온 땅으로 흩어지는 이산의 비극을 맞았다. 시간이 갈수록 선지자도, 율법도, 제사도 통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인간들 스스로의 회복이 불가능을 아셨다. 외면할 수 없는 자비의 하나님은 인간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구세주가 되셨다. 이제는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성령을 받았던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육을 모두 다 버렸다. 부도산들을 처분하여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고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다. 빈부의 차이도 없고 신분의 차이도 없는 무위상통한 공산사회를 추구했다. 그러나 이 순수했던 공동체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원인은 성령을 속이면서까지 발동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위선과 공명심 때문이었다. 또한 헬라파와 유대파 과파들의 시기와 욕심으로 공산사회는 사도행전에서 자취를 감

추고 말았다. 농경사회를 지나 중세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대화 되었다. 수시로 각종 혁명들이 일어났다. 대부분의 혁명은 빈부의 격차를 평등하게 조정하려는 물리적인 폭거의 사회운동들이었다. 이 혁명이 성공하면 부자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서민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일을 했다. 그러나 얼마가지 못해서 또 다시 빈부의 격차는 드러난다. 원인이 무엇일까? 개인능력의 차이와 자연환경의 차이가 결국 빈부의 차이를 드러내는 원인이 된다. 가령 공평하게 땅을 분배 받았어도 옥토와 밭토가 있기 마련이다. 가뭄이 오면 옥토와 밭토의 소득에는 현저한 차이가 난다. 한두 해 흉년이 들면 밭토의 지주들은 하는 수 없이 생존을 위해 땅을 처분하고 부자의 소작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빈부의 격차를 벌리는 또 하나의 원인은 개인능력의 차이에 비롯된다. 똑같은 땅을 분배 받았어도 건강하고 근면한 농부와 게으르고 병약한 농부의 소득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권력자들이 평등과 무상분배의 지상낙원 건설에 국운을 걸었다.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과 북한의 김일성의 나라가 공산 사회주의를 지향했다. 인민이 주체가 되는 나라! 빈부가 없는 평등한 지상낙원을 기대했지만 70년 이상을 버티지 못하고 공산 사회주의의 막을 내렸다. 그 시대적인 비유로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을 발표해서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는가? 이 풍자소설은... 존 스노우의 동물들이 주인의 가혹한 학대에 못 이겨 힘을 합쳐 주인을 쫓고 말았다. 그리고 저들이 동물농장을 직접 운영했다. 결과는 그 혁명을 주도했던 집권층의 독재와 부패가 오히려 더 열악한 농장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유럽과 중남미에서도 사회주의 정책을 채택한 국가들이 일어났지만 결국은 국가가 부도처리 되고 말았다. 쿠바와 베네수엘라를 보라! 사회주의는 모두의 번영을 약속했지만 결과는 국가적 재앙으

로 끝났다. 사회주의는 평등을 주장했지만 결과는 소수 절대지배 계급과 권력의 서열을 만들었을 뿐이었다. 공산주의는 지상낙원을 약속했지만 굶주림과 아사의 현장을 만들어 버렸다. 인간의 욕심과 죄성이 존재하는 한 이 지상에는 결코 지상낙원은 존재할 수 없다. 거듭난 성도들이 모인 지상의 공동체 교회 속에 여전히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지 않는가! 원하는 선은커녕 원치 않는 욕심이 지배하는 한은 교회공동체 속에서도 평등한 사회주의를 완성할 수가 없다. 다만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공산사회를 이루려는 실패장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이제 곧 주님의 날에만 진정한 공산 사회주의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굴에서 함께 쉼구는 그 날이 올 것이다. 오직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그 날에... 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jykim47@gmail.com



푸/른/초/장

양민석 목사

(뉴욕그레이트백교회)



샤넬, 프라다, 루이비통, 크리스찬디올 등의 브랜드를 소위 명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들 품목들이 명품이 되기까지는 장인정신을 가진 디자이너의 공헌이 제일 클 것입니다.

교회를 처음 디자인하신 분이 계시니다. 교회는 가장 위대한 교회디자이너 예수님께서 만든 작품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당연히 명품교회로 또는 위대한 교회로 만들어져 가야 하고 그렇게 불러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위에 언급한 명품처럼 그렇게 고귀하게 불리워지고 있는지... 진정한 예수님께서 처음에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대로 오늘날 교회가 그 모습을 잘 지켜가고 있는 것일까요? 현실을 돌아볼 때 부정적인 교회 이미지를 질책하는 소리가 높게 들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맨처음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날 원하시는 위대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 모두 다시 회복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최고의 디자이너이신 예수님께서 그려놓으셨던 위대한 교회상은 무엇일까요?

첫째, "고백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당시 로마 황제의 도시요, 우상의 도시로 불렸던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과 함께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

우리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반석'이란 다름 아닌 베드로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단순히 사람이 모였다 흩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또는 사회복지나, 문화적인 동아리들이 함께 모인 집단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요, 나같은 죄인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대제사장이요, 생명의 말

씀으로 우리를 양육하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진리되신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 삶을 섬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임 속에는 세상에서 체험할 수 없는 신령한 회개의 눈물이 있고, 영적 감격이 있으며, 감사와 소망이 있어

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명을 깨닫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곳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교회의 모습은 사람이 주도해서 이루는 일은 아닙니다. 고전12:3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듯이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었고, 주님의 인정하심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운데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것

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주님이 디자인하신 위대한 교회로 세움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 따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다시금 확증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위대한 교회는 예수님만이 주인 된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후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선포하신 교회플랜은 "이 반석(고백)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16: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예수님만이 참된 오

있던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각 교회를 향해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찌어다."

예수님이 주인 된 교회는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 뜻을 말씀에 맞춰 가려고 해야 합니다. '이 사역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생각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에 맞는 사역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인본주의, 인권 등이 말씀보다 우위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해석이 시대의 조류를 따라 그때그때 다르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시대의 조류에 의해 '진리의 불변성'을 '낡은 것'으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의 사 자기 마음을 온전히 채우는 교회는 없었기에 교회를 떠나 오랫동안 방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교회로 돌아와 깨닫게 된 것은 신앙생활은 오직 '위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극장의 관객이 사람이라면, 교회의 관객은 오직 하나님이 시기에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니라 초점을 두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또한 안시의 신앙변화는 교회를 하나의 기구로 보았던 관점이, 가족공동체라는 관점으로 변화가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 교회관은 하나의 조직체였기에 일원들의 실수를 용납하기 힘들었지만 교회는 영적가족이기에 항상 '주변을 바라보며' 품고 돌봐줌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 가족공동체인 교회는 이제 '밖을 향하여' 세상을 섬기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에 더욱 소중한 것임을 깨달았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임을 천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시는 교회는 남의 약점을 먼저 보기보다는 자기 '안을 먼저 성찰'하며 은혜로 채워가려할 때 성숙한 교인의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주님이 디자인하신 위대한 교회!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진정한 고백이 살아 있는 교회요, 오직 주님만이 주인되어 말씀이 이끌어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이며, 그래서 세상을 함께 변화시켜 가는 위대한 교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그려놓으신 교회의 모습을 찾아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lilyumc@hotmail.com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마태복음16장13-20절

하나님의 돈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라!

(1면에서 계속)

하나님은 제일 어려운 단계를 맨 처음에 놓으셨다. 일단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이 단계를 넘어서면 다른 나머지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여기 그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라신다. 돈, 시간, 부모, 형제자매, 이성 친구, 교육, 자동차, 옷 등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말이다.

빠진 게 있나? 그렇다면 여러분의 목록에 추가하길 바란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라신

다. 실제로 스스로 무언가를 소유한다고 믿으면 그것이 자신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청지기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웹스터 사전이 내린 정의에 따르면, 청지기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강요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육체적, 물질적, 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겠다는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이 첫 단계를 대신할 수 없다.

2단계: 과용하지 말라

우선, 구입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중요한 순서대로 적어 계획해야 한다. 각 품목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갖고 싶은 것인지, 욕망하는 것인지 결정하라.

음식이나 옷처럼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갖고 싶은 것 역시 아주 중요해 보일 수 있다. 새 책바지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가장 비싼 것이어야 할까? 이것이 필요한 것과 갖고 싶은 것의 차이이다.

욕망하는 것은 정의하기가 더욱 어렵다. 정확히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합리화하면 그럴 수도 있다. 지금 운전하는 고를 자동차가 잘 굴러가긴 하지

만 새 차를 사면 고장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이다.

좋은 물건을 바라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우선순위를 차지하면 중요한 것을 놓쳐 빛을 지고 어려움에 처한다.

둘째, 통장을 만들어 액수와 상관없이 매주 또는 매달 저축하도록 하자. 금액은 저축하는 행동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3단계: 정기적으로 십일조를 드리라

모든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최소한의 증거로 십일조를 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의 첫 부분

을 돌려드리기를 원하신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잠 3:9).

십일조의 액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다. 중요한 것은 저금하듯 정기적으로 교회에 헌금을 하고 자선단체나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4단계: 도를 넘지 말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갖고 싶은 것이나 욕망하는 것을 뿌리치지 못한다. 우리는 그러한 욕구와 바람에 굴복하기를 거부하고 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스스로를 통제하

는 법을 배워야한다. 성경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야한다(눅9:23).

5단계: 성급한 결정을 피하라

우리는 늘 광고나 동료들의 압력, 개인적인 욕구로 성급히 물건을 구매하고 재정적인 결정을 내리려는 유혹에 부딪힌다. 흥청망청 쓰고픈 욕구를 자제하자. 성경은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을 이룰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을 이룰 따름이니라"(잠21:5)라고 말한다.

변하지 않는 사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많은 목회자들이 동의하는 대목이다. 이단도 처음부터 이단으로 시작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신학교가서 좋은 목사가 되고자 했을 것이지만, 그가 타락을 하니 그동안의 배운 것도 무의미해진 채 이단의 교주가 된 것이다. 다리 사이로 머리를 집어넣고 엘리야처럼 기도하던 그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와 목사를 대적할 줄 어떻게 알았을까? 개척멤버라고 해서 가족처럼, 형제처럼 사귀며 가졌는데 한순간에 등을 돌리고 목사를 비리투성이로 몰아세운 채, 내어 쫓으려고 칼을 들었다면, 대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후자는 그렇게 말한다. 물건은 고쳐서 쓸 수 있지만 사람은 울어도 변하지 않고 늘 타락을 향해 걸음이 바쁜 존재여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말

이다. 죽음을 통과하듯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질이 더러운 사람은 죽어도 팔딱팔딱 튀고, 악질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함에도 그 성질이 그의 몸을 저항하게 만들더라는 것이다. 스스로 더 고 통스러워질 뿐인 것이다.

신앙과 변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변화되지 못하면 자신이 가장 고 통스럽다. 다음으로 그 주변과 공동체를 힘들게 만든다. 참된 신앙의 삶을 살다가 부름을 받으신 분들은 그 죽음의 순간마저도 곱고 아름다우며, 모든 이들의 그리움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악한 인생은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고 반복하는데, 의사가 그 아내에게 남편의 죽음을 말하여도 생전에 얼마나 가족들을 힘들게 하였는지 아내와 자식들

허무한 것이 되고 만다.

순전한 신앙, 단순한 믿음

순전한 신앙은 단순한 믿음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 것을 믿어야 한다. 죄를 지으면 이런 어려움이나 병도 생기고 하나님이 혼을 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작은 접촉사고만 나도 성수주일 제대로 안했더니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신앙생활은 훨씬 깊은 성숙의 자리에 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기도안하니 자식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자식이 원하는 만큼 살아가지 못하면 부모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 부모인 나의 탓인가? 그렇게 생각하며 부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

야 한다.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 고운 가르처럼, 죽어지고 뺏아지고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고운 향기로 올려져야 한다.

제사의 제물은 죽음을 전제로 한다. 제물이 죽으면 같이 살게 된다. 죽음을 통한 변화가 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신앙은 지식을 연마하는 교육과정도 아니다. 배워서 축적해서 멋있게 써먹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다. 어찌하면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바로 이 고민이다.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한다. 교회로 나오는 것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과 같은 평강을 맛보며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죽어야 다시 태어난다. 고쳐서 쓸 수 있는 물건도 있겠지만, 구원 얻는 생명은 오직 거듭나는 것뿐이다. 한번 거듭나서 되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입술의 신앙고백으로만 가는 줄 알기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교회)

인생의 참된 변화와 회복

- 교회, 예배, 제물

한다. 어떤 분이 군에서 보통군 사법원 법무처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고 한다. 한번은 그에게 민간인 인질을 총기로 쏘아 죽인 2명의 군인을 사형시키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 보고서를 쓰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래서 멀리서 총으로 사형이 집행되는 것을 보기 위해 사형장을 찾았는데, 두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 대조적이어서 놀랐다는 것이다. 한 사람은 그렇게 서럽게 울더라는 것이다. 옷이 젖도록 슬피 우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이라고 고백을 하며, 대통령에게도 미안하고 국민에게 물의를 끼친 것도 미안하다며 눈물로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지니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쪽 한 사람은 절대 울지 않더라는 것이다. 원망과 불평이 없는 게 없고 욕이란 욕은 다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된 자신의 생을 마감하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앞의 용서를 구하던 사람을 보니, 총을 맞는 순간 아무 소리 없이 그대로 숨을 거두는 데 반해, 원망으로 점철된 그 사람은 온 몸을 뒤틀면서 7초를 더 지나가더라는 것이다. 그분의 결론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들이 가진 그 성질에 따라 확연히 다른 생명의 마지막 모습을 결정하더라는 것이다. 흔히, 성질을 죽인다는 표현을 한다. 성질은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기에 하는 말

마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더라는 것이다. 어느 장로님이 신장에 문제가 생겨 사돈의 신장을 제공받게 되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모든 수술결과가 좋다고 해서 감사함으로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후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것이었다. 치료과정에서 혈액에 감염이 되어 생명의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그때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에 모두가 놀라운 마음을 가졌다. '나 더 이상 예수 안 믿을래' 하는 것이었다. 평생 예수를 믿은 장로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인생이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지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할머니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를 가시다가 교통사고를 만났음에도, 그 권사님의 고백은 '새벽기도 하러 다니도록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다. 예수 안에서 참된 생의 변화를 맞은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들의 참된 변화의 모습은 그 뒷모습까지도 아름답게 만든다. 공항을 가보면 갈 곳이 분명한 사람은 쉽게 걸음걸이를 옮기는 것을 본다. 그러나 한때 예수를 믿었지만 그 마음중심에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여 갈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 마지막 순간 그 불안함이 예전에 다니던 절의 중을 찾아 목탁을 치게 만들더라는 것이다. 행여, 그가 직분자라고 할 때 인생은 정말

는 것이다. 가족공동체뿐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제자로서 선생님 앞에 항상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참되고 올바른 제자가 될 수 있다. 스승은 그런 제자에게 아까운 것이 없을 것이다. 영적생활에 있어서도, 듣기는 속히 하며 말하기는 더디 하고 순종에는 아주 빠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도 훨씬 빨리 나타나는 것을 본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다. 순종 안하는 교회는 기적이 없다. 교회에서 난리를 치는 데도 속수무책이다. 교회가 능력이 없다. 예수 이름을 불러도 효과가 없다. 교회가 말씀 앞에 일치하여 순종하지 않는 그 표리부동함이 그 능력을 쇠잔케 한 것이다. 신앙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들어옴으로 마침내 능력이 된다. 공부와 논리를 따라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경험하며 맛보는 것이다. 상식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다. 성경공부를 그렇게 하고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는 지식까지만 믿기 때문이다. 진짜 믿음은 총칼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에, 구원받아도 마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다가 직분의 이름만 걸치고 죽음에 이르는 이들이 많은 것을 본다. 중요 직분자였음에도 마지막 순간이 악질 그대로의 죽음이 될 때 그 구원조차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죽었던 자아의 옛 모습들이 불쑥불쑥 살아나기 때문이다.

날마다 다시 태어남, 예배

한국에서 생선회 집을 가 보면 식탁에 올라온 생선이 분명히 죽었음에도 눈을 깜빡깜빡하는 경우를 본다. 아무리 죽어도 제대로 죽지 않는 모습이다. 그 생선을 보면서 생각했다. 죽어야 할 때 제대로 죽지 못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렇다.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고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제대로 죽지 못함으로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변화되지 못한 습성과 습관, 악한 성질들, 자신에게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다. 해법은 무엇일까? 다시 죽었다가 태어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거듭나는 것이다. 매일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 어머니와 같은 교회로 가야 된다.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듯, 예배 가운데 자신을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주의 은혜로 새 생명의 감격을 맛보고 사는 것이다. 그 은혜가 그를 살리고, 새롭게 하며, 변화된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주시는 것이다.

날마다 죽노라, 제물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의 습관과 성질, 어떻게 바꾸어질 수 있는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것도 한번 죽어서는 안 되고, 매일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 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교회의 시무 권사입니다. 현재 약 몇 달 전부터 몸이 병들고 불편하여 다리에 힘이 없고 환한 중에 처해 있습니다. 되던 기도도 잘 되지 않고 늘 나가던 새벽기도도 지금은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하버에서 Yang

A: 권사님께 드리고 싶은 성경구절이 시편 50:13-14절입니다. 이 아삽의 시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2가지 필수요소가 나옵니다. 첫째가 감사입니다(give Thanks). 시 50:13, 23절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삽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어려운 중에서도 권사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소련 공산당을 해체하는데 공을 세운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미국을 몇 주간 방문하고 나서 느낀 점이 무엇이었냐고 묻자 "미국인들은 조그마한 것에서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정신이 있는 국민들인데 이것이 미국을 위대한 미국으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가 간절히 주를 찾음입니다(Seeking with eagerly). 늘 새벽기도 나가시던 분이 몸이 약해졌다고 기도를 쉬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약해 집니다. 어떻게든 남편의 도움을 받든지 해서라도 새벽기도에 다시 나가십시오. 이어령 교수가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란 책을 보면 동지 안에 새끼가 여러 마리 있는데 어미 새는 어떻게 먹이를 먹은 놈, 안 먹은 놈 구분 하면서 입안에 넣어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새끼 입에다 먹이를 넣어준다고 합니다. 배고픈 새끼는 다급해서 입을 크게 벌리지만, 배부른 놈은 결코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권사님,

살후2:2-3, 마24:15, 계13장, 요일2:18 등에 적그리스도 언급

환난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더 많이 기도하며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디 포우라는 장로교 목사가 쓴 "로빈슨 크루소의 모험"이란 책이 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는 겨우 목숨을 건져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 섬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파손된 배에서 몇 가지 물건을 건졌는데 그 중에 약 상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오일이 나서 몸이 아파 약을 꺼내려고 조심스럽게 약상자를 열었는데 그 속에는 약이 있었을 뿐 아니라 영혼의 약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책이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약을 먹고 나서 성경책을 펴보았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 왔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다." 크루소는 잠들기 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환난 중에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처럼 기도 하오니 집으로 속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마친 그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나중에는 극적으로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명령합니다. 부르라는 것은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ASV 영어성경은 "Call upon me in the day of trouble, I shall rescue you" 한마디로 구출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당신도 '디지털 바벨론' 에 유배돼 있다!

〈1면에서 계속〉 이 부류에 속한 젊은이들은 그들의 신앙을 기반으로 삶의 의미, 목적, 공동체 의식과 세상에서의 사명을 찾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 바벨론' 시대에서 이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강력한 현상이다.

21세기형 신앙인들이 이런 역행을 감행하면서 그들의 신앙심을 키워가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들의 변화와 추세가 교회의 눈에 쉽게 감지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기독교의 영향이 이미 사그라진 세대라고 낙인이 찍혀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교회는 이 젊은이들에 대해 각각 하며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진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키너맨 회장은 진단한다.

그러면서 그는 "낙관주의와 비판주의 모두 현실에 대한 분명한 시각을 갖는 것을 방해합니다. 보다 더 완전한 그림을 그리는 것은 교회에겐 때로 매우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하는데, 교회 리더들은 현재의 21세기형 크리스천의 방향성에 대해 염려하는 동시에 이 세대가 사회에 표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 소망을 함께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고, 디지털 바벨론 시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서머타임 해제

11월 3일 새벽 2시→1시로

올해 서머타임이 11월 3일(주일) 새벽 2시를 기해 해제된다. 따라서 당일 새벽 2시가 1시로 조정된다. 이로써 한국과 시차는 14시간으로 늘어났다. 서머타임은 매년 3월 둘째 주일에 시작돼 11월 첫째 주일에 끝난다. 서머타임은 낮 시간을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한다는 취지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의 사나나(SANANA)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4 번째로 인구가 많으며 계속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국가이며 인종적으로 300여 부족들이...



들 섬들이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고 있다. 사나나는 몰루카(또는 향료의 섬)에 있는 술라 섬에 위치하고 있다...

카이(이왓), 아루, 타니바, 바바르, 그리고 위타르다.

삶의 모습

북쪽의 몰루카스의 정향나무와 섬 중앙부의 육두구(열대 상록수 열매) 향료가 유럽인들이 향료의 섬을 익히 알기 오래전에 아시아에서 무역 상거래가 있었다...

건축과 조각에 강하게 발자국을 남겼다. 인도네시아에 아랍의 영향은 13세기 때부터 주로 회교의 가르침을 통해 활성화 됐다...

우량이 지역에 따라 연중 80-150인치나 되는 다변적이다. 어떤 지역은 이전에 항상 비로 인해 이 섬의 대부분 숲으로 덮여있던 곳을 평지로 개척지로 바꾸었다...

을 믿음)이다. 여러 가지 형태의 회교가 이 나라의 가장 지배적인 신앙이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가 인도네시아 헌법에 보장돼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美 65세 이상 노인인구, 15년 후 어린이 추월

미국 인구의 고령화와 다민족화 경향이 앞으로 40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센서스국(U.S.Census Bureau)은 24일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남부인구통계협회(SDA) 연례총회에서 "15년 후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어린이 수를 넘어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센서스국은 "미국인의 중위 연령(median age)이 높아짐에 따라 은퇴 연령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는 근로자 비율은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미국 사회의 인구 고령화 현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비틀스의 미국 진출 시기(1946-1964)까지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가 나이를 먹고 자연적인 인구 증가가 둔화하는 게 주요 원인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SDA 총회에 참석한 인구학자 엘리슨 플라이어는 "베이비부머 세대 최연소자가 55세다. 미국 인구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들이 10년 후면 65세 이상이 되고, 이후 수십 년 내 생을 마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 인구는 고령화 경향과 아울러 인종·민족 구성면에서 점점 더 다양해지는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아동 인구에서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 '현재는 비(非) 히스패닉계 백인이 미국 인구의 주류를 구성하고 있지만, 40년 후면 50% 이하로 줄어든다'면서 백인 인구는 내년 기준 1억9천900만 명에서 2060년 1억7천90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플라이어는 "이민자들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면서 "유색인종 특히 미국 사회에 기반을 잡고 살아가는 히스패닉계가 그렇다"고 부연했다.

앞으로 40년간 둘 또는 그 이상의 혼혈 인구가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출생이 사망보다 많아지고, 이민에 의한 아시아계 인구 증가와 히스패닉계 인구의 자연증가가 눈에 띌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미국 전체 인구는 약 3억2천600만 명으로 추산되며, 2058년 4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인구 증가 규모는 현재 연 230만 명에서 2060년 160만 명으로 줄어들고, 미국인 중위 연령은 현재 38세에서 2060년 43세로 높아질 전망이다.

뉴욕시립대학 인구학자 앤드루 비버리지는 "요즘 젊은 층은 부모·조부모 세대보다 더 늦은 나이에 결혼하고 더 늦게 자녀를 갖는다"면서 "이들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체할 만한 수의 아기를 낳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수괴 사망했지만 사라지지 않는 IS 부활 우려

극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의 수괴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48)가 미군의 급습 작전으로 사망했지만 IS 부활에 대한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열 재정비의 기회만 열여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역대 테러단체중 가장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에 능했던 IS가 곳곳에 뿌려놓은 점조직 씨앗들이 새로운 구심점이 나타날 경우 빠르게 재결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27일 중동 지역 전문가들과 전직 미 국방·정보 당국자들을 인용해 IS의 부활과 확장을 막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잘못될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미국의 이익이 없는 곳에는 개입도 없다'는 신고립주의 기조하에 시리아 북동부 지역의 이해 당사자들이 미국을 대신해 군대 주둔비 등 온갖 재건 비용을 인계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WP는 "이들 중 어느 누구도 한때 이라크·시리아에 걸쳐 강대한 세력을 구축했던 IS와 맞서 국제 연합군을 지휘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럴 의지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갑작스러운 미군 철수로 인한 시리아 북동부 지역의 혼란은 IS 잔존 세력에게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쿠르드 민병대(YPG)가 주축인 시리아 민주군(SDF)은 이 지역에서만 1만여 명에 달하는 IS 전투원 포로들을 억류하고 있는데 터키와의 전쟁 이후에는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친미 성향의 바르함 살리히 이라크 대통령도 미 온라인매체 약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알바그다디 제거 작전의 성공은 미군·정보당국의 전략 자산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다"며 미국이 이 지역에서 발을 빼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오사마 빈 라덴의 2011년 사망 후에도 점조직으로 명맥을 이어갔던 알카에다가 알바그다디라는 수장의 등장과 함께 IS로 규합됐듯, 이들 극단주의자들에게 새 구심점만 나타나면 언제든 대형 테러조직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시가 사실상 지난 3월부터 IS의 일상적인 운영과 작전을 도맡아 왔다고 말했다. 이슬람학을 공부한 그는 IS 내에서 잔혹하고 권위 있는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N북인권보고관 "북서 1100만명이 굶주려..."

식량난과 영양실조부터 정치범 수용소 운영 및 탈북자 강제 북송까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식량난과 영양실조는 1990년대 대기근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3일 유엔총회에 열린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인권 실태를 보고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식량난과 이에 따른 주민들의 영양 문제를 제기했다. 키타나 보고관은 "북한 인구의 약 40%인 1100만명이 굶주리고 있다"며 "약 14만 명의 아동이 영양부족 상태고 이중 3만명은 사망 위험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식량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부의 불평등'까지 심화되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는 "공공 배급시스템에 차별이 만연해있고 일반 주민이나 특히 시골 농민들은 어떤 배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농민들이 개인 경작지에서 혜택을 얻지 못하면서 식량난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 5월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의 40%인 약 1000만명이 식량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키타나 보고관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가족을 조사한 결과 "지난 6개월간 중국이 탈북자를 구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중국 당국을 향해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또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수용소에 보내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도 전했다.

키타나 보고관은 북한 인권 문제를 북·미 회담에서 의제로 다루어 달라며 "(북한) 비핵화 합의와 지속적인 한반도 평화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유엔은 탈북성에 인권 보호하라"

탈북성에(EX-GAY) 인권운동가들이 유엔장

립인 24일 서울 중구 유엔 난민 기구(UNHCR) 한국대표부 앞에서 '유엔은 탈북성에 인권을 보호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UNHCR은 난민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기구다. 이들은 UNHCR 한국대표부에 '제5차 탈북성에 인권선언문'을 제출했다.

인도 필리핀 우간다 인도네시아 등 20여개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국제캠페인에는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와 동성애문제대책국제위원회, 선민네트워크 등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계 및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탈북성에운동(ex-gay movement)'은 동성간 관계를 시작하거나 추구하지 말라고 권하는 운동이다.

이 운동에는 과거 게이나 레즈비언, 또는 양성애자였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밝힌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동성애를 벗어난 체험을 동성애에 대한 성적 지향을 없애거나 억제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회원들은 동성에 치유·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다. 최근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앞에서도 인권선언문을 낭독하고 시위를 벌였다.

미국무부, '공평한 분담' 강조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동맹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동맹국들과 방위 조약상의 의무를 충족시키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공평한 분담'과 '막대한 비용'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향후 협상 과정에서 한·미 양측의 힘겨루기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미국 호놀룰루에서 23-24일(내년 이후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SMA를 포함해 한국이 한·미 동맹에 제공하는 상당한 자원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보다 더 공평한 몫을 기여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전세계에서 우리의 방위 조약상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상당한 군사적 자원과 능력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충족시키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전 세계적인 군사적 주둔 비용은 미국 납세자들이 혼자서 책임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주둔으로 득을 보는 동맹 및 파트너들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국방수장들도 연달아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발언들을 내놓았다. 나토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우리의 공동 안보에 무임 승차자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토 회원국에 방위비 분담을 압박한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각 나라가 단순히 세계의 안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나라의 안보를 위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2차 회의와 관련해 "이번 협의를 통해 우리 측은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85. 조승학(1902-?)

조승학은 1902년 5월 14일에 황해도 장연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소학교를 거쳐 평양 숭실중학교와 전문학교를 졸업했고, 평양 장로교 신학교에 입학한 그가 1929년에 황해도에서 전도사가 되었고, 1930년에 본 신학교를 졸업했을 때 30세 미만의 청년학자로 알려졌다. 다시 더 연구를 계속하려고 가족을 남겨두고 혼자 일본 신호를 출발하여 도미한 그는 1931년에 미네소타 주에 있는 맥칼리스트대학을 졸업하고 문학사를 받았다. 맥칼리스트대학에서 종교교육을 전공하려는 계획과는 달리 1932년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석사(Th.M) 학위를 받았으며, 뉴욕의 콜롬비아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은 그가 1933년에 시카고 노스웨스턴 대학교에 입학했다.

포들의 흥에 겨운 코리안 포크송으로 근래에 드물게 성황리에 밤 12시까지 친교하다가 폐회했다. 그날 순서는 조승학의 사회로 일동이 255장을 부른 후 사회자의 기도와 성경 낭독 후 소년 한이치의 피아노 독주, 나루이스와 임테니와 임알터 그리고 강의산 등 어린이들의 합창과 라스산나 여사의 솔로가 있었고, 김태선이 '17세기 조선'이라는 제하의 감사절 연설이 있었다. 이후 소년 이데니의 독창, 소녀 한살마의 독창이 있었고 준비위원이 광고하고 조승학이 축도하고 폐회했다.



조승학 전도사

시카고한인감리교회 전도사

전경무가 시카고한인감리교회 담임 전도사직을 사면하던 1933년 6월 이후에 조승학이 본 교회 담임 전도사로 파송을 받았다. 예배당은 시카고 웨스트 옥데일 826번지에 있었다. 그해 9월 20일에 오현승이 불행하게도 사망했다. 평북 정주군 출생으로 그는 서울 연희전문학교 상과를 졸업하고 1933년 2월에 상항에 입학했고, 그해 3월에 시카고 중앙 기독교 청년 학원 대학부에 입학하였으며, 타그린지 항공학교에서 수학하였다. 그 후 버지니아 육군대학에 입학하게 되어 버지니아 주로 한기도와 조한연과 함께 그가 모토사이클을 타고 가다가 부주의한 어떤 백인 자동차와 충돌하여 사망했다. 위의 두 명과 박 필과 박순욱의 주선으로 버지니아주 체스트널에 그를 안장했다. 추도식을 거행했을 때 조승학이 교회 전도사이자 북미대한인유학생 총회 종교부장을 역임하였으므로 수고를 하였을 것이다. 추도식 후 시카고 사회의 한인동포들이 부조했을 때 조승학은 1달러를 부조했다.

그해 11월 30일 추수감사절을 맞아 추수감사절 준비위원의 민반의 준비로 어린이들의 노래와 조선 고유의 만둣국에 객지에서 시달리는 거류 동

예배 후 이어진 희락회에서 아래의 사람들이 부른 코리안 포크송을 들을 수 있었다. 박태인의 질님과 장타령과 수심가, 손이도의 평양수심가 역곡, 한장호의 유자백이와 토기화상, 하희욱의 평북수심가, 김배세의 담박구타령, 김관철의 유자백이, 서해철의 롤랑, 김용택의 성주푸리, 갈홍기의 아리랑, 전기홍의 수심가, 이원규의 유자백이와 삼랑, 이순택의 춘향가, 현철의 역곡 수심가, 조산연의 난봉가 역곡 그리고 강영상의 수심가 등이었다.

1933년 성탄절 기념식은 12월 25일 밤에 본 예배당에서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거행되었다. 찬송가 65장을 부른 후 담임 목사인 조승학이 기도하였다. 이후 영광섬의 성경낭독,

어린이들의 합창, 영광섬의 성탄에 대한 설교, 한살마의 독창, 고봉경의 피아노 독주, 임자니와 임알터의 '부 모 은덕가' 독창, 한살마의 독창, 연극 '세 목사' 등이 이어졌다. 성탄 헌금순서 후에 마지막으로 산타클로스의 예물 나누기가 있었고, 약간의 다과회가 밤 10시까지 있었다. 친전난만한 어린이들이 아름다운 독창이나 합창을 하였고, 구주 성탄에 대한 성극도 있었는데 이는 본 교회로서는 처음 있던 성극이었다.

1934년에 들어서면서 1월 16일에 본 교회는 미북감리교회 감독 이하 중진 인물을 초청하고 교인이 경영하는 잔손 카페테리아에서 대만찬회를 열었다. 목회자였던 조승학의 간단한 식사에 이어 나재원의 과거 1년간 한인 교회를 처리해온 보고 형식의 약력이었은 후 내빈 축으로 무어 감독, 탐승 목사, 홀게트 박사 등의 답사와 그들이 권고하는 간곡한 열변이 교인들의 마음에 크게 감동이 되어 참석한 일반 교우들은 1934년도 교회 발전책에 대하여 일층 분발하였다.

그해 1월에 시카고에 거주하는 동포의 사업이 조사되었다. 한인동포 사업은 음식점과 화장품 그리고 기타로 구별할 수 있었다. 음식점으로는 합자회사인 피버시카페테리아 지배인 강영대, 와싱턴카페테리아 소유자 김경, 잔손카페테리아의 한장호, 합자회사인 하워드카페테리아의 강영문, 로렌스카페테리아의 김경, 합수이 도매상인 정인회사의 정태은과 오한수, 시카고카페테리아의 김경, 공경음식점의 신태림의 아우 그리고 기타 음식점을 하는 천세현과 류재익이 있었다. 화장품 사업으로는 동양무역회사 지배인 하희욱, 라마프러덕의 지배인 박탁선, 오리엔트참버러덕의 유계상, 전

이루었다. 그해 2월 18일 주일 오후 6시에 '선데이 사교회'가 시카고학생회 사교부가 주최하고 시카고한인감리교회가 후원하여 불순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대성황을 이루었다. 6시에 본 교회 부인들이 준비한 한국음식을 먹은 후 윗놀이, 하투, 조조잡기 등 각종 게임을 하였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산회했다.

그해 삼일절 기념식은 3월 1일 밤 9시에 시카고대한인국민회 주최로 남녀 70여 명이 모여 본 예배당에서 있었다. 김배세 여사의 피아노 반주에 애국가로 개회하고 사회 한장호의 간략한 취지가 있는 후 약 2분간 묵도했다. 일동이 기립한 채 아름답게 한복을 입은 어린이들의 인도로 헌기사에 따라 제2세 국민들의 '국기가'는 장내를 감격에 넘치게 했다. 임창모의 독립선언서 낭독 후 순결하고 단조롭게 한복을 입은 부인들이 '충의 남녀'를 부른 후 일동은 기립하여 부인들이 드리는 총의단 화환 증정과 함께 약 2분간 묵상으로 순국 총의 남녀를 조상했다. 사회자가 내한 선교사였던 스코필드 박사가 보낸 삼일절 축전을 낭독하였을 때 큰 박수로 환영했다.

이어서 과거 조선 민족 운동 선상에 대하여 30분간 조승학이 역사적 규명을 전했다. 그는 조선 민족의 자유 요

국 인사 등 무려 50여 명이 모여 연회 등 기타 재미있는 순서를 가졌다. 영광섬 박사가 간단한 모임의 취지를 설명했고, 갈 중국 영사가 축사를 나누었다. 이 모임에서 조승학이 기도 순서를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해 4월 4일 신한민보 본사에 미국 연방정부 우체국 비밀정탐이 방문하였다. 그는 시카고 한인 예배당 번지를 내어 보이며 이 번지에 "공산당 원이나 무정부 당원이 사느냐?"고 물었다. 기자가 대답하기를 "나 역시 그 번지에서 한인 학생회 명의로 공산주의 선전지를 받은 일이 있으나 그 번지는 한인 예배당이고 결코 공산당원이 그 번지를 빌려 쓰는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가 다시 묻기를 "그들이 누구인가?" 함에 기자가 대답하기를 "익명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 한즉 그 좀 알아야 보라 달려 부탁한 후 떠나갔다. 이러한 일을 들은 시카고한인감리교회는 특별히 주의하기를 바라며 한인 동포는 시카고 두, 세 명의 불량 학생에게 속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한민보는 삼 개월 동안 일곱 번에 걸쳐 이러한 사실을 공고했다.

그해 6월 20일경에 조승학은 인디애나주 위노아 호수에서 열리는 하령 선교회에 초청을 받아 조선 교육에 관한 강의를 하였다. 그해 10월에는 한국 민족 사업이나 교회 사업을 미국인에게 소개하는 코리안 나이트를 개최기로 했다. 어느 주일 저녁을 온전히 얻어 한국식 음식을 준비하여 팔며 모든 활동을 시험함이 좋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아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조승학이 준비위원장이 되었다. 그달에 강경건의 본 교회 이사 사임서를 받고 한인성을 선정하여 보필하고 재무는 최능익으로 선임했다.

1935년 4월 21일 주일 시카고한인감리교회 이사회는 전도사 조승학의 사면 청원을 받았다. 서북대학에서 철학사 학위를 받게 되는 마지막 해인만큼 그가 너무도 골몰하여 부득이 사면하였다. 두 해 동안 교회를 시무한 결과가 양호하였으므로 교인들은 그를 놓기 매우 섭섭하였으나 본 교회 이사회는 후임 목사 청빙 위원으로 임 초와 최능익을 선정했고, 그해 5월 조승학을 비롯하여 한승곤, 강영승 그리고 장세운 등 네 명을 전도부로 조직하고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교회 사무를 공동으로 보기로 하였다. 그해 7월경 조승학은 신임이사로 선임되었다.

노스웨스턴 대학 박사과정에서 철학을 공부하던 조승학이 1935년에 위스칸슨 대학원으로 전학하여 1937년에 졸업하였다. 그런데 1939년 9월에 그는 다시 본 대학원에 입학했다. 이듬해 북미대한인유학생 총회 행정위원회 회장이 된 후 그의 이름을 찾기 쉽지 않다.

damien.sohn@gmail.com

1933년 6월 시카고한인감리교회 담임전도사 파송

1939년 9월 위스칸슨 대학원 입학 후 행방 묘연

경무행점의 전경무, 한순교행점의 한순교, 양일태행점의 양일태 그리고 조상연행상의 조상연이 있었다. 그리고 기타로 도매와 소매상인 김여택의 화원, 나재원의 소매상인 매켄필드회사 화원, 임용필의 동양식물상, 윤 립의 동양식물상, 김 배 회사인 동양미술품 및 잡물, 서해철의 동양과자상, 이응영의 동양잡화상, 현 철의 동양잡화상, 이보민의 세탁비누염업이 있었다.

새해부터 조승학은 미국 사회에서 설교자를 초청하여 주일예배 설교를 부탁했다. 그해 2월 11일 주일에는 1922년부터 1927년까지 원주와 평양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C. 프리드플 칼슨 목사의 설교와 그가 목회하던 교회 찬양대까지 와서 좋은 음악이 있었고, 나수산나 여사의 독창으로 위의 찬양대에 대하여 담례하였다. 예배 후 이사장 장세운의 사회로 60여 명의 교인이 모인 가운데 교인대회를 개최하고 본 교회 목사 조승환과 평신도 대표 갈홍기와 김태선 등 3명을 금년 하기에 제네바 록에서 개최하는 미국 감리교 연회에 파송할 대표로 선정했다. 이날 오랫동안 시무하던 임 초는 교회 간사직을 사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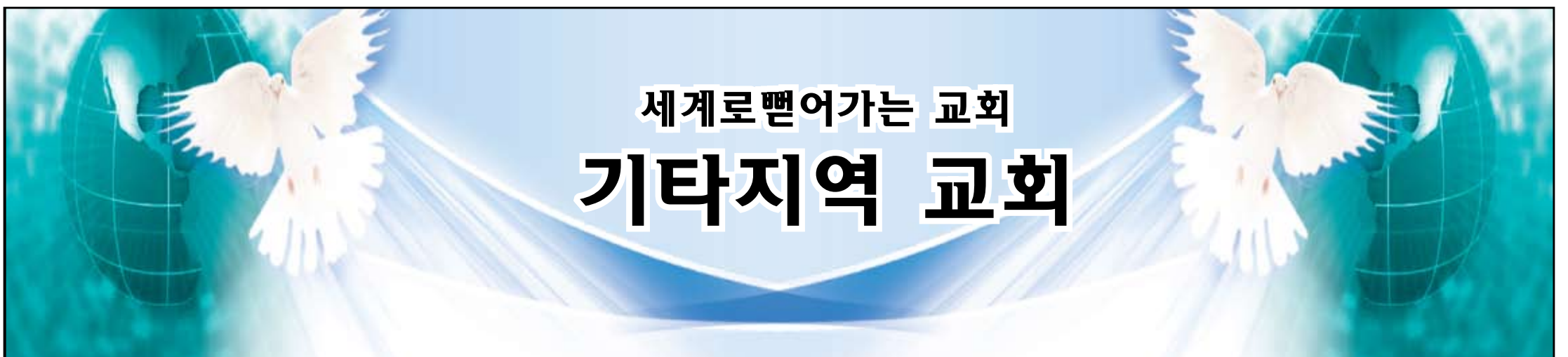
그리고 주일 저녁마다 일반 남녀들의 사교회를 열어 시카고한인감리교회가 시카고 사회의 한 중심지대를



시카고 한인감리교회

구는 즉 생물학상 신진대사 법칙으로 필연적 요구라고 결론지었다. 나수산나 여사의 독창과 이병두 부인의 피아노 반주 후에 김태선이 '삼일절선교 해외동포'라는 주제로 약 30분간 열변을 토했다. 나재원의 인도로 독립기념금을 수금하여 30여 달러가 모였다. 이어서 만세 삼창으로 정식 순서를 마친 후 자리를 옮겨 밤 11시에 밤참으로 방편을 먹은 후 헤어졌다.

본 교회 이사인 김 경이 그해 3월 13일 하오 7시에 자신이 경영하는 시카고 와싱턴카페테리아에서 20주년 사업기념회를 개최했다. 시카고의 관계와 실업계의 중요한 인물들과 내의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 일 예 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델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살롱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새벽기도회: 새벽 6: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대안찬양예배: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 유, 유년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 Park, Charlotte, NC 282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3)749-9929, www.omychurch.org 7639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주일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9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 (915)755-1490, 사택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8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Tel: (254)535-1842(한), (254)541-4933(국)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el: (804)560-7500, www.jk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7)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레이교회)

제 2편 실낙원(하) 6. 청교도적인 강조점

이 작품의 대부분 내용이 신앙적이며, 특별히 청교도적인 요소를 크게 가지고 있다. 밀턴이 성경을 자신의 자료로 삼고 대부분 인유(引喻)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그가 성경으로 이 작품의 중심을 삼았다고 할 수 있다. 성경은 청교도의 궁극적 권위로서 모든 교리를 재는 시금석이요 우리가 믿고 지켜야 할 규칙이다.

작품에서 밀턴은 동산에서 가치를 치며 일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계속 확인한다.

2)선한 삶으로 결혼관계 밀턴은 결혼관계를 이상화하는데, 그 한 부분으로서 남편과 아내의 흠 없는 성관계의 아름다움을 꼽는다. 카탈리사상이 지배하던 세기에 성관계는 타락의 결과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교도 전통 속에서는 그것이 타락 이전에도 존재했다고 주장한다. 밀턴은 부분적으로 결혼의 로맨틱한 사랑에

는 삶이다. 아담과 하와의 대화에서 취하는 모든 화제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일, 자연, 상호사랑, 심지어 잠자리까지도-이다. 이 작품에서 아담과 하와는 저녁찬송을 즐기는 모습까지도 보여준다.

3)영적 우월성

밀턴은 군사력을 증진하고 인간의 성공에 최상의 가치를 두었던 서사시의 전통적 전통을 채용하기도 하지만, 그는 전통적인 서사시의 가치들을 실제로 삼아 사탄과 사탄의 추종자의 가치들을 부정하고 있다. 여기서 밀턴이 전원적인 주제를 선택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영웅적 가치들(군사력과 정복)을 전원적인 만족의 가치, 겸손한 자세,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사랑 등으로 대체시킨다. 그는 영웅적 가치들을 가정적 가치로 바꾼다. 즉 왕과 전사에 대해 쓰는 대신, 가정의 일상적인 삶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 쓴다. 밀턴은

로 세상의 지혜를 무너뜨리며 또한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견디는 일이 최상의 승리를 위한 용기이며 신실한 자에게는 죽음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임을 배우고자 하나이다! 나는 지금 영원히 복되신 나의 구속자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통해 이것을 배웠나이다”(12:561-573).

나아가며

독자들은 웅대한 규모의 작품을 구술(口述)로써 완성한 밀턴의 서사시에서 반드시 감동을 받을 것이다. 그는 서사시의 일정한 형식에 인간의 원죄와 구원의 가능성이라는 내용을 담는다는 어려운 과제를 위대한 신학자들 작품 못지않게 훌륭하게 완수하였다. 밀턴은 인간사회의 질서와 무질서의 문제, 즉 자비롭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이 세계에 어떻게 혼돈과 죄악의 씨가 침투해



변명혜 박사

(아주사파시픽대학교 교수)

가을 영성

이제 시월도 마지막 주로 향하고 있다. 고국에서의 시월은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 계절이지만 올해 LA의 시월은 화씨 90도를 넘는 여름의 연속이었다. 더운 날씨로 가을을 느끼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가을이면 어디든 자연을 찾아 가야 할 것 같은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무엇이 그리도 바쁘지 일년 회원권을 만들어 놓은 데스칸소 가든 한 번 갈 여유를 찾지 못한 채 시월 중순을 넘겨 버렸다. 마침 지난주에 노스캐롤라이나 랄리에서 회의가 있었다. 비행기 시간이 잘 안 맞아서 회의 하루 전에 도착하는 티켓을 샀다. 남은 시간 동안 우버를 이용해서 랄리에 있는 공원으로 가서 자연 속에서 쉼 쉼하고 저녁 시간에 숙소를 제공해주신 교수님 댁으로 들어 갈 계획을 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같이 청년집회를 섬긴 교수님의 사모님은 나 혼자 다니게 하는 것이 편안하지 않으셨는지 굳이 공항으로 마중을 나오셨다.

가는 비가 내리는 랄리는 단풍이 물든 가을 모습으로 일상에 지친 나를 반가이 맞아주었다. 밤 비행기를 타고 중간에 또 갈아타느라 잠을 설치기에 우선 교수님 댁에 도착해서 두 시간 정도 푹 낮잠을 잤다. 자연을 좋아하는 내 마음을 읽은 사모님이 오후에 댁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강가 산책로로 데려 가셨다. 비 그친 강을 따라 싱싱한 물방울을 머금은 나무들이 늘어선 길을 걷자니 가슴 깊이까지 시원해지는 숲의 향기가 마음을 행복하게 했다. 기대하지도 않았던 자연 속의 좋은 휴식이 정말 감사했다.

게리 토마스는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는 책에서 아홉 가지 영성을 소개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각자에게 더 알맞는 접근 방법이 있다는 내용이다. 말하자면 각자의 영적기질이 다르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이상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어느 때는 들꽃 한 송이를 통해, 또 다른 때는 깊은 말씀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한다. 부당한 일을 당하는 이웃을 보면 그들을 위해 소리를 내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돕기도 한다. 다양한 영성의 추구로 게리 토마스가 제시하는 영성은 다음과 같다.

자연주의 영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을 보게 된다. 또한

음악이나 예술 등 오감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사랑하는 감각주의, 의식과 상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통주의, 고독과 단순함을 추구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금욕주의 영성이 있다. 행동주의 영성은 사회의 정의를 위해 참여하고 악에 대항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마더 테레사로 대표되는 박애주의 영성은 이웃 사랑으로, 열정주의 영성은 신비로움과 축제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묵상주의 영성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지성주의 영성은 생각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아홉 가지의 색깔을 골고루 지닌 것이다.

바쁜 이민의 삶을 사는 우리의 영성은 주로 어떤 색깔을 띠고 있을까?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만들기가 쉽지 않고 또 말씀을 묵상할 틈을 내기도 쉽지 않다. 고독과 단순함을 추구하는 영성도 현대인의 삶에서는 큰 도전이다. 또한 한인인교회회는 행동주의와는 거리가 있어서 지역사회의 이슈에 참여하는 것이 낯고 알려져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균형 있는 사귄을 나누려면 의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도 일단은 의도가 있어야 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번 학기 강의하는 과목의 내용에도 일상에 틈을 만들어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보내라는 권면이 있었다. 너무 바빠서 따로 조용한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는 학생들의 말에 내일 수업은 바다를 보이는 언덕에 위치한 리트릿센터에서 모기로 했다. 열심히 사느라 짬을 못 내는 학생들이 안스러운 것도 있지만 지난 주 노스캐롤라이나의 아름다운 자연을 나 혼자 누리고 온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어서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기에 너무 좋은 계절인 가을의 영성은 단연 자연주의 영성 같다.

lpyun@apu.edu

노동, 결혼관계, 영적우월성, 그리스도 속죄 등 청교도적 요소 사용 오늘날 타락한 양심과 부패한 교계에도 경종 울리는 구원의 목소리

생애 초기에 밀턴은 자신의 작품에 전통적인 서사시인 전래 신화집과 아더왕의 전설자료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가 창세기 첫 부분을 사용하기로 한 것은 철저히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청교도의 전통에 따르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작품 첫 부분에서 자기는 “산문적이지 않은 것”(1:16)을 추구한다고 말하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자료로 취하고 전통적 서사시의 엄격한 형식에 맞추어 시를 썼다는 것을 표현한다.

이 작품에서 드러난 청교도적 이상의 핵심요소들을 살펴보자.

1)노동

노동에 대해 그는 “인간에게는 날마다 해야 할 육체 또는 정신의 일이 있으니 정해진 대로 일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나타나 있고 인간의 모든 일 속에는 하늘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 있다”(4:618-20)고 말한다.

대한 그림을 통해 이 점을 표현한다.

“생각하건대 곧장 나란히 놓는다. 아담도 그 아름다운 아내를 싫다 하지 않았고, 하와도 부부애를 표현하는 신비한 의식을 거절하지 않았으리라. 위선자들이 가혹하게 무슨 말을 하든지간에 순결과 장소와 흠 없음에 대하여 어떤 자들에게 명령하고 모두에게는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신 것을 그들은 불순하다고 비방한다”(4:741-47).

밀턴은 낙원에서의 삶에 대해 청교도의 완전한 성례제도를 예증하고 있다. 청교도들이 교회에서 성상과 의식을 추가시키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그들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밀턴의 이야기 속에 묘사된 타락이전 아담과 하와의 참으로 매력적인 삶의 모습은 일상적 삶의 과정 속에서 자기 안에 갇혀있는 모습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

타락 전 아담과 하와의 완전한 영적 삶과 타락 후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 위해 회개하고 나아가는 행위 속에서 보는 것처럼 영웅으로서의 전사를 영웅으로서의 기독교 성도로 교체시킨다.

4)그리스도의 속죄

이 서사시 전체가 지향하는 마지막 현현의 순간에 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에 초점을 맞춘 장래역사에 대한 환상의 결론을 지향하고 있다. 이 시 속에 나타나 있는 아담의 지성과 영혼의 마지막 상태를 보자.

“앞으로 나는 순종하는 것만이 최선이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분과의 면전에 있는 것처럼 견고 언제나 그분의 섭리를 지키며 모든 피조물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항상 선으로 악을 정복하고 적은 일로 큰일을 성취하고 약하게 보이는 것으로 세상의 강한 것을 물리치고 소박한 운유

들어왔는가 하는 문제를 비판적으로 풀어냈다.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 인간의 절망과 희망, 빛과 어둠, 선과 악의 극단적인 대립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구세주를 통한 속죄로 인한 회복을 장중환 서사시적 문체와 격조 높은 비유, 의식적인 시어에 담아 완성시킴으로, 이 ‘실낙원’은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타락한 양심과 부패한 교계에도 경종을 울리는 구원의 목소리가 될 수 있다.

더하여 시인 자신의 실명이라는 신체적 장애를 불굴의 믿음과 용기로 극복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완성한 결실이라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 이 성격적이며 경건성을 가진 그리스도 중심적인 작품은 모든 기독교인이 시적 이미지를 통해 깊게 음미하여 읽어야 할 필수 신앙독서라고 할 수 있다.

younsklee@hot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cusa@yahoo.com / www.laifcc.com Tel: (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1:30 (청년) 새벽기도회: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태극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영양) 주일 학교: 오전 11:00 믿음의심(월-금): 오전 5:30 토요일예배: 오전 6:30 토요일학교: 오전 9:00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www.nachim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714)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청년예배: 오후 2:00 영. Youth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 Youth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8:00(월-토) 금요일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 오전 11:00 (청년부)수: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학교: 오후 7:30 Tel: (213)381-2202, www.mjpci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영. Youth: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 Youth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10: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성경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안락사제기도시간: 305일 24시간 모로 Tel: (714)446-6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침례: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ccj.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oci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98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rtonev.com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수요일예배: 오전 9:45(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본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ccgo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핼(PIM)선교회, 교회 담임목사: 이훈우 주일 예배: 10시 50분 11월 8일 "이름만 목회자 중거의 정직에 들어가 본 목회자를 위하여"는 이목의 지향이며 품위 있고 순서 및 불이 피어사 삼구 열매가 열리다. Tel: 213 924-3340, mission1004@gmail.com 3944 Wilshire Blvd, LA, CA 90010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력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회서신

위선의 탈을 벗자



이재근 목사 (주사향선교회 담임)

위선의 탈을 벗고, 정직과 솔직함으로 살자! 최근에 작가 미상(未詳)의 '그리스도인은 ... 적하지 말아야 한다'는 14가지의 글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1)바쁜 적하지 말아야 한다. (2)피곤한 적하지 말아야 한다. (3)어리석은 적하지 말아야 한다. (4)아픈 적하지 말아야 한다. (5)가난한 적하지 말아야 한다. (6)힘든 적하지 말아야 한다. (7)믿음이 없는 적하지 말아야 한다. (8)연약한 적하지 말아야 한다.

(9)슬픈 적하지 말아야 한다. (10)두려운 적하지 말아야 한다. (11)죄인인 적하지 말아야 한다. (12)외로운(혼자인) 적하지 말아야 한다. (13)꿈이 이뤄지지 않은 적하지 말아야 한다. (14)기쁨부음이 없는 적하지 말아야 한다."입니다. 참으로 현대 교인의 실상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사탄학'을 연구해보면, 사탄이 적어도 10가지의 전략을 통해 우리 인간을 유혹하여, 멸망의 길로 가게 하려고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1)교

만(Arrogance, Pride) (2)절망(Despair, Hopelessness) (3)비교의식(Comparison, Parallel) (4)의심과 불신(Doubt & Unbelief) (5)거짓말(Lie-Liar) (6)미움(Hate) (7)불평과 원망(Complaint & Grumble), (8)지연(Delay, Lateness) (9)불성실(Insincerity, Untruthfulness) (10)위선과 외식(Hypocrisy & External Ornament)입니다. 이같이 사탄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작전 중의 하나가 위선과 외식에 있음을 간파해

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위선(偽善, Hypocrisy)입니다. 예수님도 가장 미워하셨던 것이 위선과 외식(外飾, External Ornament)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33절에서,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잔과 그릇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찬 회색한 무덤 같고 소경된 인도자 노릇을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일곱 번씩이나 "화있을진저!"라고 질책하시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관결을 피하겠느냐?"라며, 사랑의 주님으로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독설을 내뿜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2-23절에서,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

능을 행치 아니 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곧 세상 끝의 심판 날에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자들이 실제로는 주의 이름을 사칭하며 주의 이름을 위하는 척하며 주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자기 이름과 명예와 욕심을 채운 자들입니다. 겉은 거룩한 척하나 속은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 찬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무서운 질책입니다.

한글 사전을 통하여 위선의 정의를 찾아보았더니 "위선은 본심에서가 아니라 겉으로만 착한 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그렇지 못한 데 거룩한 척, 의로운 척, 경건한 척, 믿음이 많은 척 행세하는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그리스도인은 ...

적하지 말아야 한다'의 14가지 글 중에서 나는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지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 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 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우리는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어서 저주받아 말라죽었던 무화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마 21:18-22, 막 11:12-14). 눈가림과 거짓으로 위선으로 사람들의 눈을 잠깐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은 폭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 앞에 드러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감추일 것이 없습니. 현대교회와 교인들이 바르게 살 길은 위선과 외식의 탈을 벗어버리고, 빛 되신 하나님 앞에 정직과 솔직함으로 사는 길 밖에 없습니다.



미주장신 콘서트 콰이어 초청연주회에서 미주장신 콘서트 콰이어와 청중들이 함께 찬양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개안수술을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에서 대흥장로교회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고 있다.



살롯장로교회 추계 연례 부흥회에서 강사 김영복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7년전 교회음악 시간에 시작... 미주장신 콘서트 콰이어 초청연주회

미주장신콘서트콰이어(지휘 조혜정 교수) 초청 연주회가 23일 오후 7시30분 주님의빛교회(담임 주혁로 목사)에서 열렸다. 이상명 총장은 "미주장신 합창단이 귀한 찬양 통해 많은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음이 너무 큰 기쁨이고 은혜이고 감동이자 영광"이라 말하며 "많은 교회들이 저희 콘서트 콰이어와 함께 찬양을 드리고 성도들과 은혜의 교제를 나누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혜정 교수는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게 되서 기쁘고 감사

하다"며 "7년 전 교회음악 수업 시간에 콰이어가 만들어져서 날마다 함께 기도하며 찬양했다. 합창단 올해 창단하게 됐으며 매주 화요일에 모여 교제하고 기도하고 연습했다. 장신합창단을 창단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열정 있는 자들을 환영 한다"고 말했다. 주혁로 목사 개회기도로 시작된 이날 연주회는 '그 사랑이제 난 알았네', '그가', '주와 같이 갈 가는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등 성가곡과 '별', '넬라판타지아' 등 가곡을 불렀다. <박준호 기자>

시각장애인 개안수술돕기 자선음악회

실로암안과병원 주최 실로암선교미주후원회 주관

실로암안과병원(원장 김진태 목사)이 주최하고 실로암선교미주후원회(이사장 김도림 장로/회장 이영휘 장로)가 주관한 제 9회 시각장애인 개안수술돕기 자선음악회가 27일 오후 5시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에서 용장영 목사(LW커뮤니티교회 담임)의 기도로 막을 올렸다. '사랑의부부합창단'(단장 Alfred Kim)이 단에 올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를 앙모하는 자'를 오픈 곡으로 들려주었고 월튼한인장로교회 김주희, 이지영 씨의 바이올린 피아노 이중주는 아름다운 선율과 깊은 감동을 선사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외에도 남가주기쁨의교회 조이여성 중창단, LW커뮤니티교회 찬양대, 대흥장로교회 찬

양대, 크리스틴정, 남가주이화여고동창합창단, Orang Mission Choir, 동양선교교회성가대, Young artists Orchestra 등의 찬양과 연주는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과 파스함을 표현하기에 충분했다. 한편 영상을 통해 지금까지의 사역을 보고했으며 미주후원회의 임원소개와 인사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실로암선교미주후원회는 한국의 실로암안과병원(이사장 김진태 목사)에서 진행되는 한국과 해외의 저소득층 시각장애인들의 개안수술을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를 열어오고 있다. 미주후원회의 관한 자세한 것은 (714)323-0897 또는 (213)519-1277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살롯장로교회 추계 연례 부흥회 강사 김영복 목사 5회 집회 인도

살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 추계 연례부흥회가 10월 25일 일부 사흘간 열렸다. 강사는 의정부 사랑과평화의교회 담임 김영복 목사로, 5회 집회를 인도했다. 김 목사는 첫 시간부터 변화산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이 철저히 달라진 모습을 통해 예수님 재발견으로 생애가 축복과 새 비전으로 달라지기를 최선으로 격려했고, 철저하고 또 철저하게 소외되고 버림받았음에도 그리고 인생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철저히 살려낸 인생이 가나다랗게 그러나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위대한 새 인생을 시작

하게 됐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기구한 운명을 통해 오히려 이방인 됐던 우리의 구원의 위대성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들었다. 철저한 기도의 선용과 확실한 기도의 뜨거운 헌신으로 새 역사를 이루는 도전을 받았다.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도 요나의 철저한 회개와 목숨을 다한 부르짖음으로 새로워진 인생을 도전받았으며, 네 번째 설교 주일오전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세상적인 방법이 아무리 그럴싸하더라도 여러 방법이 통할 것 같아도 다 부질없는 일이다 <13면으로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h4>뉴욕망양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p> <p>Tel: (718)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h4>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45 금요기도회: 오후 8:45 새벽기도: 오전 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p> <p>Tel: (718)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h4>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혜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h4>뉴욕새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p> <p>Tel: (917)733-7387, chungkita@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p>	<h4>뉴욕새생명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637-1470 45-50 162 St, #2FI, Flushing, NY 11358</p>	<h4>뉴욕새사라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Fax: 경음), (917)373-3411 46-04 162 St, #2, Flushing, NY 11358</p>	
<h4>뉴욕센트럴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30(월-토)</p> <p>www.cpcofny.org, Tel: (516)387-8940, 8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h4>리빙스톤교회</h4> <p>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평일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원예배: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p> <p>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h4>빛과소금교회</h4> <p>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청년예배 오후 3: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h4>주비전교회</h4> <p>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 오후 8:30 영어예배: 오후 1:00</p> <p>Tel: (718)787-8999, bonhee@hotmail.com 70 Plandoma Rd, Manhasset, NY 11030</p>	<h4>퀸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p> <p>Tel: (718)886-4040, www.kapccq.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2>하와이 및 북미 지역</h2>						<h4>뉴욕갯세마네교회</h4> <p>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 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p> <p>Tel: (516)520-2004, www.nygetsemane.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p>
<h4>아르헨티나 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최광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3:00 주일 4부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윤,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4>토론토 가든교회</h4> <p>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h4>하와이 행복교회</h4>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4>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윤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h4>멕시코 현지인 교회</h4> <p>선교사: 임한근 선교사 1. 멕시코 빈민 학교 교수 2. 임아누벨 신학대학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p> <p>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p>	

동부교계 게시판

east

뉴욕한인목사회 정기총회

제 48회기 뉴욕한인목사회 정기총회가 11월 25일(월) 오전 10시 뉴욕만나교회에서 열린다. 뉴욕목사회(회장 박태규 목사)는 이에 앞서 회장, 부회장 임후보 등록 절차 및 총회를 공고했다. 등록기간은 10월 30일-11월 1일 오후 4시까지이며 11월 6일 심사하게 된다. 입후보 자격(회칙 제4장 10조 7항)은 ①목사 안수 10년 이상 된 자 ②대뉴욕지구에서 담임목사 만 5년 이상 된 자 ③분회 임원 및 실행위원 역임한 자 ④인격과 품행에 결격 사유(법정 금고형 이상 및 재판에 계류 중인자)가 없는 자.

▲문의: (917)992-5200 서기 박시훈 목사

뉴욕교협 제 46회기 회장 이취임식 및 시무예배

뉴욕교협(회장 양민석 목사) 제 46회기 회장 이취임식 및 시무예배가 11월 17일(월) 오후 5시 후러싱제일교회(담임 김정호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8)279-1414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미국 방문

사단법인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일행들이 미국을 방문한다. 집회일정은 △11월 3일: 이사장 송일현 목사, 뉴욕영안교회(담임 김경열 목사) △3일: 총사업본부장 이규철 목사, 필라델피아교회(담임 안재도 목사) △6일: 대표회장 전태식 목사, LA목회자 세미나. 한편 △1-3일: 이경은 목사,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 부흥성회를 인도한다.

▲문의: (917)963-9356, (347)502-2571

뉴욕청소년센터 정기이사회

뉴욕교협(회장 양민석 목사) 산하 청소년센터(대표 황영송 목사, 사무총장 김준현 목사) 정기이사회가 11월 4일(월) 오후 6시 뉴욕교협 사무실에서 열린다.

▲문의: (718)279-1313

뉴저지목사회 회비납부 촉구

뉴저지한인목사회(회장 유병우 목사, KACANJ) 제 10회기 임원들이 회원들에게 회비 납부 촉구 이메일을 발송했다. 목사회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연회비 100달러를 우송해달라는 공문이다. 뉴저지한인목사회는 출범한지 3개월 됐다. 주소: 757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문의: (201)394-7821 총무 김동권 목사

[정정] 제1743호 8월 24일자 10면 기사 '뉴저지한소망교회 4대 담임 정세훈 목사'의 기사내용을 '뉴저지 한소망교회는 지난 해 4월, 3대 김귀안 목사가 교회를 떠난 후 노회의

협조를 받으며 올해 2월부터 청빙을 준비해왔다. 한편 김귀안 목사는 지난 6월 초 뉴저지 세빛교회 담임으로 취임했다'로 정정합니다.



뉴욕실버선교학교 제 29회기 종강 및 파송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5명 수료...도미니카 단기선교 32명

뉴욕실버선교학교 제 29회기 종강 및 파송예배

뉴욕실버선교학교 제 29회기 종강 및 파송예배가 지난 10월 28일 저녁 8시부터 뉴욕선한목자교회에서 열렸다.

뉴욕실버선교회(회장 김재열 목사)가 운영하는 선교학교는 이번 졸업생 5명을 포함 총 32명이 함께 하는 도미니카 단기선교가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일정으로 예정돼 있다.

회장 김재열 목사(뉴욕센트럴교회 담임)는 영상인사를 통해 "수료자들이 남은 생애 복음 전도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바란다"며 "부르심과 주신 은사를 따라 동역해주길" 축원했다.

종강 및 파송예배는 훈련원장 김경열 목사 인도로 대표기도 이지용 목사(뉴욕게세마네교회 담임), 찬양 뉴욕실버찬양단, 설교 한재홍 목사(이사장), 헌금특주 유진웅 교수, 헌금기도 손성대 장로(뉴욕교협 부회장), 수료증 수여, 선사 및 단기선교사 파송, 영상인사 김재열 목사, 격려사 양민석 뉴욕교협 회장, 축사 빈상석 목사(친구교회), 축가 김현진 전도사, 선교무용 최윤자 단장, 광고 이형근 장로(사무총장), 축도 박준열 목사(뉴욕선한목자교회 담임) 순서로 진행됐다.

한재홍 목사는 "지혜의 힘"(약3:13-18)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지식으로 알려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실천

하며 살아가라"며 "언제 어디서나 좋은 영향을 끼치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목사는 "하나님이 지혜로 살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다"며 본인이 말한 7가지-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 없음-에 대해 언급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홍 목사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를 범한 것처럼 나 한사람이 중요하다"며 선교지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복음이 절로 전파되도록 행동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역설했다.

양민석 목사는 "미션은 3B, 즉 최상의 사역(best work), 최고의 사람(best person) 최고의 상(best prize)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상 받을 것을 들어 격려했다.

빈상석 목사는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시간에 동참함으로 하나님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료자 및 단기선교사 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번 29기 수료자는 강태자, 박소피아, 김성려, 정병남, 정은숙이며 이번 도미니카 사역은 의료, 한방, 이미용, 안경, 사진, VBS 등이다.

(유원정 기자)



뉴욕청소년센터 후원음악회를 마치고 케리그마남성중창단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놀라운 기능태 가진 현실태 청소년들...

뉴욕청소년센터 후원음악회, 케리그마남성중창단

뉴욕교협 청소년센터(대표 황영송 목사) 후원음악회가 10월 27일 오후 5시30분 뉴욕열방교회(담임 고성민 목사)에서 열렸다.

음악회는 황영송 목사 사회로, 기도 조원태 목사(이교교 위원장), 축사 양민석 목사(뉴욕교협 회장), 론 김(뉴욕주 상원의원) 순서로 진행됐다. 또 김준현 목사(사무총장)가 광고했다.

황영송 목사는 청소년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준 케리그마 남성중창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뉴욕교협 회장 양민석 목사는 축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생명을 안에 놀라운 가능성을 심어 놓으셨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태(Reality)와 기능태(Potential)로 설명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을 놀라운 기능태 가진 현실태이며 천국을 이끌어 갈 겨자씨로 비유하고 "청소년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꿈들을 펼칠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과 격려를 주자"고 당부했다.

그레이스캠 연방하원의원을 대신해 황영송 목사가 5명의

청소년들에게 봉사상을 전달했으며, 론 김 뉴욕주 상원의원도 5명의 다른 학생들에게 봉사상을 전달했다.

음악회는 케리그마 남성중창단 연주로 진행돼 '원해', '고백', '믿음 소망 사랑', '주님 내 맘속에', '동행', '내 삶의 이유라', '주 품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등을 찬양했다.

중창단은 테너 3인(김동진, 박성하, 공경민), 바리톤 2인(이종진, 유영문), 베이스 3인(김요한, 오희훈, 한선욱)으로 구성돼 있다. 단장은 김요한이며 피아노 반주는 이한나.

이날 피아노 트리오(피아노 김민혁, 플루트 이보은, 첼로 김민진)와 여성 2중창(소프라노 김수정과 김은옥, 피아노 이한나)가 특별출연했다.

공연 후 송윤섭 장로(이사장)가 청소년센터 후원에 대해 소개했으며, 헌금 후 최호섭 목사(이사, 뉴욕영락교회)가 헌금기도를 하고 고성민 목사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문의: (718)279-1313.

(기사제공: 뉴욕청소년센터)

“거룩한 교회! 성결과 섬김”

예수교미주성결교회 제17회 정기총회, 총회장 박순탁 목사

예수교미주성결교회 제17회 정기총회가 “거룩한 교회! 성결과 섬김”이라는 주제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뉴저지 섬기는교회(담임 박순탁 목사)에서 열렸다.

총회장 박순탁 목사는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총회, 주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총회, 교계에서 소문난 자랑스러운 총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인사하며 회무에서 부총회장 박순탁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새로운 임원을 선출했다.

미주 총회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문정민 총회장이 신임 박순탁 총회장에게 스톨을 착의하는 순서를 가졌다. 또 3년 임기를 마친 양승민 목사 후임으로 김영일 목사를 총무로 선임했다.

새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박순탁 목사(미국 동부지방회, 섬기는교회) △부총회장 송영진 목사(캐나다 서부지방회, 임마누엘교회) △총무 김영일 목사(미국 서남지방회, 더섬기는교회) △서기 강양규 목사(미국 서남지방회, 남가주 새인양교회) △부서기 신유호 목사(미국 서부지방회, 예수생명교회) △회의록서기 조관식 목사(미국 동부지방회, 하늘소망교회) △회계 서정학 목사(미국 동부지방회, 하회커뮤니티교회) △부회계 유상욱 목사(캐나다 서부지방회, 벤쿠버 세광선교교회).

회무처리를 통해 지방회에서 올라온 △총회산하 성결대학교 및 대학원 총동문회 결성 스캐나다 동부와 서부 지방회 통합 △임원자력 강화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다뤘다.

회의에 앞서 한 개회예배는 사회 박순탁 목사(부총회장),

찬양 섬기는교회 찬양팀, 기도 강양규 목사(미국서남부지방회장), 성경봉독 유상욱 목사(캐나다서부지방회장), 말씀증거 문정민 목사(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헌금기도 임근영 목사(미국서부지방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문정민 총회장은 “중심에 서 있는 여호수아”(수23:5-10)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교회와 총회가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일단 천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 싸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지방회 회장으로 수고한 직전 지방회장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 파라과이, 도미니카, 멕시코 선교사들에게 선교기금을 그리고 미주총회 산하의 개척교회들에게 개척 후원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직전 총회장 이남규 목사의 집례로 성찬식이 진행됐으며, 이어 목사안수식이 열렸다.

안수식에서 김성진(미동부지방회, 섬기는교회), 이미애(미서부지방회, 안젤라교회 담임), 이충식(미동부지방회, 오늘의목양교회), 임희철(미서남지방회, 나눔과섬김교회) 등 4인이 목사안수를 받았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의 미주총회인 예수교미주성결교회는 미국의 동부, 서남, 서부 등 3개 지방회와 캐나다의 동부와 서부 2개 지방회 등 총 5개 지방회에 49개 교회, 98명의 목사와 3명의 전도사가 속해있다. 이번 총회를 주관한 가장 규모가 큰 미국 동부지방회(회장 송일권 목사)는 20개 교회가 속해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예수교미주성결교회 제17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목회자기도회 10월 정기에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자”

뉴욕목회자기도회 10월 정기에배

뉴욕목회자기도회(회장 박이스라엘 목사)가 지난 23일 오전 10시30분 리빙스톤교회에서 10월 정기에배를 가졌다.

뉴욕목회자기도회는 지난 1년여 간 한국과 미국, 뉴욕교계를 위해 기도회를 가져왔으며 지난 9월 23일에는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주관하기도 했다.

예배는 이준성 목사 인도로 기도 박항우 목사, 설교 이상열 목사, 합심(동성)기도 이창중 목사(한국, 미국 그리고 북한을 위한 기도), 정순원 목사(미국과 세계 선교사를 위한 기도), 박항우 목사(뉴욕교계와 교포사회를 위한 기도), 박이스라엘 목사(뉴욕목회자기도회를 위한 기도), 축도 정순원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상열 목사(리빙스톤교회 담임)는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었느냐”(렘2:36-37)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만물이 다 각자의 길이 있으며 작은 미물도 제 길을 바꾸지 않지만 인간은 길

을 바꾼다”며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말했다.

유 목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꾸면 첫째, 수치를 당하고 둘째, 형통하지 못하다”며 “성경엔 좁은 길과 넓은 길 두 길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수치를 당하게 된다. 또 바른 길은 힘들고 멀지만 계속 가면 순금같이 나오게 된다. 생명의 길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길 따라가는 모두가 되자”고 말했다. 2부 회무는 박이스라엘 목사 기도 후 인사 및 보고 시간을 가졌으며 이창중 목사 광고 후 주기도문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11월 목회자기도회는 20일(셋째주 수요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장소는 추후 연락한다.

(유원정 기자)



뉴욕미션합창단이 2019 찬양축제에서 첫 곡 '사도신경'을 연주하고 있다.

“찬양의 군사로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

뉴욕미션합창단 2019 찬양축제

뉴욕미션합창단 2019 찬양축제가 10월 27일 저녁 5시30분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렸다.

음악감독 제시유 지휘자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최고의 제사”라며 이번 찬양축제를 준비하는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평생 찬양해도 채우지 못한다. 우리를 찬양의 군사로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정성을 다한 미션합창단에 격려의 박수를 부탁한다”고 인사말을 했다.

단목 이지용 목사(뉴욕게세마네교회 담임)는 “감사할 때 영혼 깊숙한 곳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고 더 나아가 고난 중에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이 밤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했다.

찬양축제는 단목 이지용 목사의 기도로 시작해 첫 곡 '사도신경'부터 마지막 곡 '주기도'로 예배 형식을 따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뉴욕미션합창단

은 총 7곡(사도신경, 축복하노라, 주는 내 피난처니, 시편 150편,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기도)을 찬양했으며 1곡을 앵콜곡으로 불렀다.

특히 '시편 150편'은 이광희 목사(뉴욕할렐루야교회)의 곡으로 이번 찬양축제에서 초연됐다.

또 사회자 청솔 윤영미 시인의 자작시 낭독, 영김 전도사는 지도고문 이광희 목사의 곡 '내 양을 먹이라' 찬양, 합창단의 보컬 코치를 맡고 있는 세라 윤의 '천 번을 불러도' 찬양이 진행됐다.

또한 한국의 찬양사역자 김현진 전도사의 간증과 찬양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마른 뼈'들은 다양한 타악기를 동원해 하이лай트를 연출했다.

이외에 바이올린에 지현주와 기현주, 첼로에 재기 현 그리고 트럼펫의 맥스민이 출연해 합창단과 함께 연주했으며, 뉴욕 아리랑 퍼포밍아트스의 도인순 단장이 장구와 북으로 합창연주를 도왔다.

찬양축제는 피아노 권민아, 키보드 김동하가 함께 했다.

(유원정 기자)

새 노래로 찬양하라...7개 합창단 참여

남가주교회음악협회 제19회 창작성가의 밤



남가주교회음악협회 주최 제19회 창작성가의 밤에서 본 협회 임원들과 창작성가의 밤에 참석한 시인들과 작곡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남가주교회음악협회(회장 전현미) 주최 제19회 창작성가의 밤이 10월 27일 오후 6시 세리토스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에서 열렸다.

전현미 회장은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말씀대로 올해 초부터 시인들의 창작시와 새로운 곡을 탄생시킨 작곡가들, 그리고 초연하는 합창단 모두가 협력해 창작성가의 밤이 열리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며 "호흡이 있을 때까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창작성가의 밤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현미 회장 인사말과 조성환 목사 기도로 시작된 창작성가의 밤은 글로리&프레이즈 콰이어(지휘 박신실), 코랄레움 뮤직콰이어(지휘 이경원), 그랜드페스티벌콰이어(지휘 강민석), CTS 콘서트콰이어(지휘 김명옥), 남가주사랑의교회 호산나남성중창단(지휘 조성원), 베델교회 베델성가대(지휘 박정영), 캠프탈(지휘 이수정), 보컬리스트 허훈 씨가 참가해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을 선사했다.

(박준호 기자)



어린이전도협회 주최 다민족 어린이 부흥회가 새생명아시아교회에서 열렸다



동양선교교회 가을 말씀 사경회 강사로 섬긴 높은 뜻 덕수교회 오대식 목사

복음으로 어린이 구원이루도록

어린이전도협회 주최 다민족 어린이 부흥회

어린이전도협회(대표 여병현 목사) 주최 다민족 어린이 부흥회가 10월 2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새생명아시아교회(담임 김일형 목사)에서 열렸다.

여병현 목사는 "다민족 어린이 부흥회 개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린이들이 구원받는 것이 두 번째

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예수 안에서 복음의 정신으로 잘 성장하게 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날 부흥회는 찬양운동, 말씀시간, 그리고 게임시간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오페라캐리포니아 소년소녀 합창단이 참석해 부흥회를 빛내주었다.

(박준호 기자)



글로벌위십미스트리 주최 예배찬양 특별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만회의 열매 맺는 삶 살라!

동양선교교회 가을말씀사경회, 강사 오대식 목사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 '2019 가을 말씀사경회'가 25일부터 27일 주일까지 오대식 목사(높은뜻 덕수교회)를 강사로 진행됐다.

집회 셋째 날인 주일 첫 예배는 김지훈 목사의 인도로 이형수 집사 기도, 오대식 목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오대식 목사는 '만회의 시간'(눅13:1-9)이란 제목으로 말씀에서 "본문은 죄 없는 사람은 살고 죄 있는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나의 돌도 없이 단팥이던 친구가 일본에서 목회를 하던 중 30대 초반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고 실의에 빠지고 삶에 대해 무감각해져서 언제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조금 더 오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살면서 잘못 살아온 날들을 회개하며 나의 욕심이나 무의미한 열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만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날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 주님을 위해 살다 기쁨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성자 기자)



Moments of Music Foundation이 주최한 제5회 정기연주회가 지퍼홀에서 열렸다

청소년 음악적 재능 육성 목표

Moments of Music Foundation 제5회 정기연주회

Moments of Music Foundation(MMF)이 주최한 제 5회 정기연주회가 10월 27일 오후 4시 지퍼홀에서 열렸다.

이날 연주회는 크리스토퍼리, 마틴 갈슨, 셸리 하지, 데런 위스, 트솔리네 하지엔, 노 민지 등 피아니스트들이 MMF 챔버 오케스트라(지휘 김용재)와 협연을 했으며 이들의 수준 높은 공연에 청중들은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냈다.

MMF는 청소년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고취시키고 음악적 재능을 육성해 인간 정신의 가장 고귀한 열매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며 청소년들이 성인이 돼도 지속적인 예술적 성장을 촉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무료 콘서트, 공연 기회, 마스터 클래스 및 음악 축제를 통해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하늘의 예배를 회복하라"

글로벌위십미스트리 예배찬양 세미나, 강사 탐크라우터

글로벌위십미스트리(대표 가진수 교수) 주최 예배찬양 특별세미나가 '하늘의 예배를 회복하라' 주제로 10월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세계적인 예배찬양 강사 탐 크라우터(트레아닝 리소스 대표)가 강사로 나서 열린 강의를 인도했다. 강의는 예배를 상상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가? 예배에서 빈번하게 놓치기 쉬운 요소 등 3강으로 진행됐으며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탐크라우터 대표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

여하기를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완전히 경배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며 완벽한 교회를 찾을 수 없다고 예배에 나가지 않는 것 정당화될 수 없다"며 "모든 신학적 이론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된다. 예배가 삶의 일부가 돼야 하지만 라이프스타일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배는 예수님의 형상이 돼 가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돼가는 것"이라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CTS AMERICA 특별모금방송 'CTS WEEK'

11월 4-6일 오전 9시-12시 생방송 진행

기독교 방송 CTS AMERICA(대표 백승국)의 특별모금방송 'CTS WEEK'가 오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이 땅을 살리소서'라는 주제로 진행될 이번 특별모금방송에서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의 문화와 무분별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CTS 기독교 TV가 감당해야 할 미디어 사명은 무엇인지 짚어보며 방송선교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다.

특별히 이번 방송에서는 CTS방송선교를 위해 설교와 프로그램 등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 교회의 다양한 목회자들과 CTS의 시청자들이 스튜

디오에 함께 나와 한 해 동안의 방송사역을 돌아보며 방송소감과 감동을 나누는 풍성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목회자와 성도, 다양한 세대의 출연자들이 이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다음세대를 위한 우리의 역할을 고민하는 귀한 나눔의 장이 될 것이다.

CTS 방송은 DirecTV 채널 2092와 Cable Vision(미동부)을 통해 미 전역에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CTS America 어플리케이션, 유튜브 및 CTS



America 홈페이지(www.ctsamericatv.com)를 통해서도 실시간 생방송을 볼 수 있다.

▲문의: (800)700-0191 (기사제공: CTS AMERICA)

서부교회 게시판

West

성가대 지휘자 & 독창자 청빙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는 1부 시온성가대 지휘자와 소프라노 독창자를 청빙한다. 지휘자 자격은 세례받은 교인 혹은 사역자, 찬양에 사명감을 가진 성악 혹은 지휘 전공자로 이력서(사진, 자기소개서(신앙간증 포함), 추천서(추천인 연락처), 성가대 지휘 영상 혹은 링크를 제출하면 된다. 소프라노 독창자 자격은 세례교인, 성악전공(재학생, 졸업생), 음원 및 영상음원 혹은 링크(필수)이며 금요일 저녁 1회, 주일 예배전/후 연습시간 참석가능하다.

▲문의: (949)854-4010

위탁가정 아이들 크리스마스 선물후원 캠페인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가 11월 한 달 동안 위탁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후원 캠페인을 펼친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 캠페인은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위탁가정 아이들을 위한 후원을 받아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구입한 뒤, 12월 7일 열리는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후원금은 개인 수표를 한인가정상담소로 보내거나 한인가정상담소 홈페이지(www.kfamla.org)에서 신용카드로 후원할 수 있다. jinakim@kfamla.org

▲문의: (213)235-4867 김지나 소셜워커

제 2회 KWMO 선교박람회

세계선교교회운동(KWMO) 주최 제2회 선교박람회가 10월 31일(목)부터 11월 7일(목)까지 KWMO본부(13921 Artesia Blvd, Cerritos, CA)에서 개최된다. 이번 선교박람회는 △선교특강 △무역업 강의 △BAM △노동사업의 전망 △솔라저온창고의 사업특성 △솔라 및 전기원리△솔라 컨테이너 저온창고 △컨테이너 저온창고 냉장원리 △A/S사업전망 △현지 A/S의 중요성 △현지인 A/S기술교육 △현지 딜러십 사업전망 등 강의를 진행한다. 강사는 이은무 선교사, 김정환 선교사, 김삼기 목사, 장순찬 집사 등이다.

▲문의: (714)350-6957

새생명비전교회 설립10주년 기념부흥회

새생명비전교회(담임 강준민 목사) 설립 10주년 기념부흥회가 '새생명 비전 공동체'라는 주제로 11월 8일(금)부터 10일(주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이며 일정은 8일(금) 오후 7시30분, 9일(토) 오전 5시10분, 오후 7시30분, 10일(주일) 1-3부 예배.

▲문의: (323)373-0110

동부사랑의교회 우영화 담임목사 위임감사예배

동부사랑의교회 우영화 담임목사 위임감사예배가 11월 3일(주일) 오후 4시 본 교회 사랑채플에서 PCA한인서남노회 전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다.

▲문의: (909)590-3722

발립보교회 교회이전 감사예배

발립보교회(담임 신상원 목사, 111 N Virgil Ave, LA) 교회 이전 감사예배가 11월 3일(주일) 오전 11시 개최한다.

▲문의: (213)500-1468

LA 통곡기도회

그날까지 선교연합(UTD-KCC, 대표 손인식 목사)가 주관하는 LA지역 구국을 위한 통곡기도회가 11월 10일(주일) 오후 4시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818)662-0400

어린이전도협회 특별 교사세미나

어린이전도협회(대표 여병현 목사)는 성탄절 발표회를 위한 특별 교사세미나를 11월 2일(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CIU 채플(3130 Wilshire Blvd 3rd Fl, LA)에서 갖는다.

▲문의: (213)382-1544

나성영락교회 건강세미나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Fibroscan 간 검사 사전등록 및 세미나가 11월 2일(토) 오전 8시30분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 소망관에서 '간암, 잘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문의: (562)922-4689

은혜커뮤니티 건강검진

은혜커뮤니티 건강검진 행사가 11월 2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건강검진은 일반종합 혈액검사, 각종 암수치 검사, 3달 평균혈당, 헬리코박터균, 갑상선, 비타민D검사, 간염검사, 소변검사 등을 하며 무료 독감예방접종도 실시한다.

▲문의: (714)417-2001

밸리연합감리교회 설립 46주년 기념감사예배

밸리연합감리교회(담임 류재덕 목사) 설립 46주년 기념감사예배가 11월 3일(주일) 1, 2부 예배시간에 열린다.

▲문의: (818)366-0089

남가주사랑의교회 성인자녀 세미나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는 "성인자녀 이해하기"(미운우리새끼)라는 주제로 성인자녀 세미나를 11월 2일부터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분당 130호에서 갖는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는 변명혜 전도사, 박재민 교수.

▲문의: (949)285-4864

정상화 눈앞 두고 '암초' 만난 총신대

총신대 전 재단이사들, 공개사과 1개월여 만에 '복귀 소송'

정상화를 향해 순항할 것으로 보였던 총신대(총장 이재서)가 '전 재단이사들의 복귀 소송'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들은 지난달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김준중) 제104회 총회에서 총신대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총회대의원 앞에 머리 숙여 사과했지만, 1개월여 만에 반전됐다.

28일 찾은 서울 동작구 총신대 종합관 1층엔 '전 재단이사회 소송 대응 재학생 탄원 서명'이란 팻말이 붙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전 재단이사들이 법원에 낸 임원취임 승인취소 관련 보안 소송이 최근 계속 진행 중인 것이 알려지면서 이들의 복귀와 혼란 재현을 막기 위해 학생들이 나선 것이다. 지난 24일 시작된 서명운동에는 현재까지 학부와 신대원 학생, 총신대 동문 등 2900여명(온라인 서명 포함)이 동참했다.

학생 A씨는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며 강의실로 복귀할 것을 호소했던 장소에 다시 전막

을 치고 제2의 총신대 사태를 걱정하며 탄원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전 재단이사들은 학내 구성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부끄러움을 자각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총신대 총학생회 측은 입장을 통해 "학교 발전을 저해하며 학우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며 "전 재단이사들의 이사직 복귀 소송 즉각 취하" "전 재단이사들에 대한 예정합동 교단의 면직 출고 조치" 등을 촉구했다.

총신대 교수 일동, 총신대 신대원 대의원회, 원외회도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전 재단이사들은 총회 현장에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뒤로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면서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 학생들의 아픔과 희생은 외면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변수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8일로 예정됐던 최종 판결을 미루고 조정애 나선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4월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 재단이사들은 '긴급처리권 남용을 통한 이사회 운영' '부당한 임시휴업 및 학생 징계' '불투명한 교비 지출' 등 학교운영 전반에 23건에 달하는 비리를 저질렀다.

이재서 총장은 "법원이 전 재단이사들이 제기한 임원취임 승인취소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므로 본안 소송도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혹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재단이사 중 소수가 복귀한다고 해도 그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없어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학생 교수 등 총신대 구성원이 복귀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정합동은 29일 총회회관에서 실행위원회를 열고 관련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김종준 총회장은 "교단 차원에서 전 재단이사들과 접촉해 소송 취하를 독려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해법을 놓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회를 세상의 조물거리로 만들어 교회가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길을 가로막았다"면서 "한국교회 목회자 모두가 무릎 꿇고 회개할 일"이라고 했다.

이어 "예정합동 총회에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담임목사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 2021년 전 명성교회 수습안을 철저히 하고 과거에 결의대로 세습반대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한 목회자는 분별력이 약한 청소년들에게 교회학교와 기독교 기관에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잊었다.

성경은 동성애를 엄격히 규제(레20:13)하고 있으며 정벌의 대상(롬1:24-27)으로까지 밝히고 있다. 또 동성애에 대해 '가증한 일'(레18:22), '부끄러운 일'(롬1:27), '불의한 일'(고전 6:9) 등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동성애를 죄에 방치된 인간들이 범하는 성적 타락의 가증스러운 본보기로 삼았다.

이날 성명서도 발표했다.

감독회장 임기 축소·은퇴목사 연금 개선

기감 입법의회 29-30일...어떤 안건 다루나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감독회장 임기 축소를 정식으로 논의한다. 기감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는 최근 제33회 입법의회에서 다룰 장정개정안을 확정했다. 기감은 2년마다 임법의회를 열어 교단 헌법에 해당하는 '교리와 장정'을 개정한다. 입법의회는 29-30일 경기도 안산 꿈의교회(김학중 목사)에서 진행됐다.

가장 관심을 끄는 안건은 감독회장 임기 축소안이다. 기존 '4년 전임제'에서 '2년 겸임제'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겸임제는 담임목사를 유지하면서 감독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임기와 권한을 동시에 축소하고 있다. 감

독·감독회장 선거방식도 투표에서 제비뽑기로 전환하는 안건을 다룬다.

기감이 감독회장제를 대폭 손보려는 건 그동안 드러난 부작용 때문이다. 2004년 4년 임기 전임 감독회장제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 법원의 처분에 따른 감독회장 직무 정지도 반복되고 있다. 전명구 감독회장도 2018년 4월에 이어 지난 7월 또 직무가 정지됐다. 이번 입법의회에선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대신 의사봉을 잡는다.

은퇴목사 연금제 개선도 추진된다. 목회자 은급기금(은급) 상한선을 92만원에서 90만원

으로 2만원 낮추는 안이 상정됐다. 반면 교회들이 부담해 오던 은급 부담금은 상황 조정했다.

개정안에는 교회 전년도 수입 결산액의 2.3%를 은급에 납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2.0%에서 0.3% 포인트 인상된 안이다. 은급 기금의 고갈 시기를 늦추려는 조치다.

'교회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기감 일부 특별위원회로 신설할 가능성은 커졌다. 위원회는 장로와 목사 연수과정에서 양성평등 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할 수 있다.

본부 산하 '도서출판 KMC'와 '기독교타임즈' 법인을 분리하는 안도 다뤄진다. 선교사에 지원할 수 있는 나이도 만 25-60세로 조정된다. 지금은 만 23-55세 성도와 교역자들이 지원할 수 있다.

목회자부문 배진기 목사, 평신도부문 박흥일 장로

제13회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수상자 발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구현하는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회(대표회장 정인찬 목사) 교회일치위원회(위원장 안준배 목사)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김용완 목사)는 '제13회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수상자를 선정 발표하고 10월 31일 오후 3시 한국기독교성령센터 황희자홀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상장, 상패가 수여됐다.

수상자는 목회자부문 배진기 목사(포항 안디옥교회 당회장)와 평신도부문 박흥일 장로(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설립자).

목회자 부문 수상자 배진기 목사는 성령세계2020 대표강사 단장, 세계성령운동중앙협의회 제28대 대표회장, 한국기독교성령역사연구원 이사, 예수교 대한하나님의성회 경증총회장, 포항안디옥교회 당회장을 맡고 있다. 성령운동으로 교계와 교

회, 세계와 한국을 하나되게 해 한국교회연합과 일치에 기여했다.

평신도 부문 수상자 박흥일 장로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설립자, 세계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명예회장, 직장선교문화원 이사장, 서울대학교 기독교총동문회 전회장, 성령세계2020 직장선교위원장, 과학기술처 차관보를 역임했다. 직장교 교회, 세계와 한국을 하나되게 해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기여했다.

한편 시상식을 앞두고 소프라노 오미선 교수의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에 향한 콘서트가 열렸다. (기사제공: 한복총)

"교회, 성장보다 성숙 고민할 때"

'도시교회' 주제 제11회 수표교포럼

'수축사회' 속의 교회는 양적 성장 대신 내적 성숙에 방점을 찍고 목회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 수표교교회(김진홍 목사)가 27일 '도시교회, 그 성숙의 실마리'를 주제로 교회 본당에서 연 제11회 수표교포럼에서다. 수축사회란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 규모가 줄어드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꼬집은 말이다. 한국교회도 교인과 예산이 꾸준히 줄고 있는 곳이 많다.

정재영(실천신학대학원대 종교사회학) 교수는 '성장 이후 도시교회의 변화와 역할'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교회 성장은

멈춰고 다시는 양적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는 "교회는 성장보다 성숙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교회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진 상황에서 위한 대안적 활동을 마련하고 영성과 경건 훈련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목회를 해야 한다"면서 "도시에서는 큰 교회와 작은 교회들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공동체성 회복에 기여하라"고 주문했다.

한동구(평택대 신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교회의 모습과

성서가 지향하는 교회를 비교했다. 한 교수는 한국구약학회장을 지낸 역사신학자다. 그는 "지금 교회는 지역사회(세계)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기의 시대, 교인과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구별된 가치를 가져야 한다"면서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게 아니라 교인다음, 교회 다음을 회복하는 걸 말한다"고 했다. 이어 "소통을 위해 일방적 태도를 버리고 이웃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겸손함으로 무장하라"며 종교적 배타성을 경계했다.

김진홍 목사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뜻해 삼자'면서 "포럼을 계기로 성장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생명이 넘치는 성숙한 교회가 되자"고 권했다.

"명성교회 세습 예정통합 결의 반대"

한목협·한목운, 총회결의 규탄 성명서 발표

한국교회목회자윤리위원회와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의 결의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한목운과 한목협은 "예정통합 총회가 104회 총회에서 명

성교회의 세습을 인정한 것은 한국교회 역사에 또 한 번 큰 수치를 초래한 결의"라며 "총회가 대형교회의 세속적 권세 앞에 무릎 꿇은 사건으로 신사참배 못지않은 부끄러운 굴욕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성애 옹호 성평등 조례 개정하라"

가평군기독교총연합회 23일 기자회견 열고 성명서 발표

가평군기독교총연합회(회장 이주형 목사)는 지난 23일 오전 경기도 가평군청 앞에서 '성평등 조례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경기도 민을 병들게 하는 동성애 옹호 나쁜 성평등 조례 즉시 재제정 하라고 촉구했다.

가평군기독교총연합회장 이주형(가평 향사리교회) 목사는 "개정 성평등 조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다. 향후 동성결

혼 합법화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목사는 "경기도가 성평등 위원회 설치와 운영 비용을 도민 형세로 지원까지 한다고 하니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 의회는 지난 7월 동성애를 옹호하는 성평등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목회자들은 "동성애 미화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경계심을 높여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조선총독 가슴에 방아쇠를..." 일제가 전율한 '여자 안중근'

크리스천 독립운동가 남자현과 경북 영양

1934년 국제연맹 리트조사단이 하얼빈에 왔을 때 왼손 약손가락 두 마디를 잘라 '조선독립원' 형서를 썼던 크리스천 독립운동가 남자현의 동상과 생가 모습. 손에 형서 '조선독립원' 천조각을 형상화했다. 남자현은 경북 영양에 살며 신앙을 받아들였다.

'혁명의 어머니' '전율할 노파' 크리스천 독립운동가 남자현을 두고 하는 얘기다. '전율할 노파'라니... 당연히 일본군과 순사들 입에서 흘러나온 얘기다. 경북 영양 출신으로 의병의 아내로 살던 남자현은 유복자 김성삼을 데리고 20대 중반 만주로 탈출해 서로군정서에서 활약하며 항일 무력투쟁을 펼친다. 이 전율할 노파는 일본군의 간담을 서늘케 해 '여자 안중근'으로도 불린다.

남자현(1872-1933)
남자현은 1924년 체찬, 이청산 등과 함께 사이토 마코토 조선 총독 암살에 나섰다. 영화 '암살'의 전사 안윤옥(전지현 분)이 남자현을 모티브로 했다.

1933년 8월 27일 자 조선중앙일보 보도. '무도 노부요시 대장 암살범 남자현 별세, 단식은 극도로 쇠약한 결과'. 남자현은 33년 2월 주만주 일본대사 무도를 처단하기 위해 나섰다. 하얼빈 중심가에서 일경에 체포되고 만다. 그리고 그는 하얼빈 감옥에서 죽음으로 항거하기 위해 단식에 들어갔고 단식 9일 만에 혼수상태에 빠져 병보석으로 출소한 후 사망한다.

▷ 남자현묘 입석식이 10월 12일 오후 4시 하얼빈 외국인 공동묘지에서 있었다'는 내용

이다. 석판묘와 2m 못 미치는 묘비 사진이 실렸다. 묘비 맨 위에 선명한 십자가. 그는 죽어 독립을 지켜봤을 것이다.

환갑 노파, 일 대사 처단 나서다

지난 15일 경북 영양군 석보면 지경리 남자현 지사 생가는 여느 한적한 농촌처럼 인적이 드물었다. 완고한 영교의 고장 경북 안동 일직면에서 태어난 남자현은 5-6세 무렵 석보로 이사 왔고 19세에 의병 지도자인 김영주와 결혼했다. 김영주는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 이듬해 순국했다. 남자현은 '과부'가 됐다. 그의 생가는 1999년 복원됐으며 본채와 사당, 동상과 항일순국비 등을 갖추고 있다. 도시와 가깝다면 역사교육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았을 것이다.
묘비 십자가에서도 알 수 있

듯 남자현은 신앙인이었다. 동만주로 시택 가문 사람들과 탈출해 독립운동을 할 때 남자현은 교회 및 지도자를 12군데 개척할 정도로 신실했다. 아들 김성삼에 따르면 '기도하는 어머니'였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를 잘 모른다. 이완용을 처단한 평안도 출신 기독교 청년 이재명 의사처럼 말이다.

남자현 연구자 강윤정(안동대 교수)은 "만주라는 공간에서 여성이 무장활동을 벌이는 쉽지 않았으나 그가 자신의 길을 꿋꿋이 열어가던 것은 기독교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남자현은 유학 경전을 읽으며 대의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동시에 기독교를 수용하면서 근대 여성으로 나갔다"고 평가했다.

이 믿음의 근대 여성은 총을 들고 만주 농어촌을 순회하며 민족 계몽운동을 펼쳤다. 사람

들을 모아 예배를 보고 그곳이 기도처가 되면 예배당을 세웠고 예배당을 중심으로 교육과 전도를 했다. 특히 '여자교육회' 등을 조직해 여성 교육에 힘썼다.

그가 동만주행을 결행한 것은 40대 후반, 3·1운동이 발생한 1919년 3월 9일이다. 유복자였던 아들과 함께 남편의 원수를 갚겠다며 압록강을 건너 서로군정서에 들어갔다. 그는 영양에서 소문난 효부였다. 더욱이 아버지 남정환은 후학을 길러낸 안동 유생이었다. 그렇다면 유교적 틀 안에서 자라고 시집간 남자현이 예수로 믿음으로 차별이 없다(롬3:12)는 말씀을 어떻게 가슴에 새긴 걸까.

1910년 설립된 교회는 1980년대까지 유지되다 폐쇄됐다.

'1910년 무렵 영양 석보면 포산동에 포산동교회가 설립되는데 이는 석주 이상룡(독립운동가)의 동생 이상동과 그의 아들 백광 이운형(독립운동가·1892-1972)이 세운 교회였다. 이들은 1909년 포산동으로 이주해 예배당을 설립하고 농업개발 및 성서연구에 매진한다. 1919년 예배당이 신축된다... 남자현과 지역적 연고가 깊고 이운형과 연계 가능성이 크다... 이운형이 만주와 국내 3·1운동 연계를 위해 국내에

들어와 다시 만주로 갔을 때가 남자현의 영양 탈출과 같으므로 결국 남자현의 만주행에는 그 중심에 기독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강윤정 연구 논문).

그 포산동교회를 찾는데 애먹었다. 마을도 교회도 기억하는 이들이 없었다. 생가지 인근을 헤매며 노인들을 만나 물은 끝에 포도산(748m) 정상 인근 분지 형태의 마을에 이르렀다. 생가지에서 13km 떨어진 곳으로 요즘과 같은 시대에 이처럼 오지가 있나 싶을 정도였다. 마치 영화 '동막골'을 보는 듯했다. 화전마을로 형성된 포산동은 백두대간 트레킹을 하는 이들이나 찾는다. 8가구가 산다. 물론 1인 가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東만주에 12교회 세운 잊혀진 신앙인

눈에 띄는 팻말이 있었다. '머루(포산)산 성지'. 천주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이곳에 숨어들어 신앙공동체를 이뤘고 1814년 배교자의 밀고로 파괴돼 순교자를 낳은 곳이다. 일경에 쫓겨야 했던 이상룡 선생, 또 이상동 이운형 부자도 천하의 요새 같은 이곳에 교회를 세웠다. 한때 70여명이 출석했다.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1970년대) 포산동교회에 출석했어요.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때 사탕과 달걀을 받는 재미로 다녔어요. 지금이야 차가 들어오지만, 그때는 산길만 있었죠. 80년대 폐쇄됐을 겁니다."

타지에 살며 뒷밭을 가꾸기 위해 들어왔다는 이곳 출신 중년 농부가 옛 예배당 터를 알려주며 증언했다. 필박반전의 병 가족 남자현 일가는 이 깊은 산속에서 안동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함께하며 기도하고 교육을 받았다.

또 한 사람의 연구자 이윤옥(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장) 선생은 2014년 동만주 열두 교회 개척자 남자현이 감옥에서 곡기를 끊고 별세한 후 그가 묻힌 하얼빈 옛 외국인 공동묘지 내 남자현묘지터를 찾아낸 인물이다. "독립은 먹고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에 있다"는 남자현의 기도문을 찾아 거기까지 간 것이다. 비신앙인인 그가 세상의 기독교인들에게 말했다.

"왜 한국교회는 같이고 매 맞아 가며 동포의 정신을 일깨우고 열두 교회를 세워 해방을 염원했던 남자현 같은 신앙인을 알리고 하지 않나요. 왜 '유관순' 한 분만 있다고 생각하나요."

“우울증과 영적 치유” ⑤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육, TPPM대표

2)영적 억압

우울증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공격을 당한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우리의 내면에 들리는 음성을 대항해서 싸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파괴적 사고의 여러 음성이 있다.

다음의 예는 사람이 음성을 듣고 영적인 공격을 받아 얼마나 고통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또한, 영적 억압은 집중력에 영향을 주어 몽롱한 생각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과 공격에 대항해 싸우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1)고통의 성과 그 음성

고통의 영은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공격한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을 통해서다. 파괴적인 권유를 하여 혼란하게 하거나 혼돈에 빠지게 한다. 그 음성을 듣고 이를 쫓는다면 더욱더 깊은 혼돈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는 괴롭히는 영에게 문을 열어줘서 깊은 감성적 고통으로 괴로움을 겪게 한다.

영적 고통으로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은 삶의 문제로 버거움을 갖거나 혹은 갖지 않음으로 영적 고통을 겪는다. 그 공격은 밤이고 낮이고 올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자는 동안에 악몽으로써 공격을 당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치유하시고, 기도로 마귀를 저주하고 물리칠 수 있으므로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

고통의 영의 공격을 당하는 사람은 파괴적인 음성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들은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 그들을 압박하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처리해야 한다. 두 번째로 고통의 영의 공격 방법은 육신적인 고통이다. 사람이 고통을 느끼지만, 실제로

육신적인 문제는 없다. 간혹 마귀가 가져다주는 육신적 문제가 있기도 하다. 마귀가 떠나고 나면 그 사람의 질병은 고쳐지게 된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깊은 고통이 이런 괴롭히는 영으로 기인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괴롭히는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 믿음이 괴롭히는 영으로부터 놓임 받게 될 수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친 후에도 바로 물리치지 않는다면, 혹은 빠뜨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하거나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이 마귀가 아직도 당신을 붙들고

하는 게 아니라 보고 느끼기까지 할 수 있다.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 영적 존재를 대할 때는 정신을 잃게 된다. 어떤 이는 어두운 그림자가 그들 위를 떠다니는 것을 느끼고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집중할 수 없게 된다.

사람이 너무 많은 생각, 특히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집중포화를 당할 때 흐릿한 마음에 놓일 수 있는데, 이는 혼란케 하는 영으로 기인하는 것이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아픔과 상처를 긍정적으로 회복하도록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기도를

통해서 혼란케 하는 영으로부터 놓이며, 자유로울 수 있다.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풀어나가야 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혼란케 하는 영을 꾸짖어 물리칠 때, 흐려진 마음에서 벗어나 맑은 정신을 찾게 된다.

(3)비난의 영
비난하는 영으로 고난 받는 사람은 ‘너는 좋지 못해,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어’ 하는 마음속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근심하고 희망도 없고 무기력감과 무가치를 느끼게 된다. 이런 음성은 단연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소

은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비난하는 영은 사람을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자신을 증오하는 감옥에 가두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난하는 음성에 맞서는 법을 배울 때, 그들은 고통스러운 생각에서 자유를 찾을 수 있다.

애석하게도,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이 비난하는 소리로 고통 받고 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해서 사람을 비난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란 느낌이 들게 만든다. 우리는 왜곡된 음성을 믿는 게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4)절망과 자살의 영
절망의 영은 사람들에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낮추어 보라고 설득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선한 것이며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도 최고의 결작이다. 어떤 생각이라도 자신과 남을 평가절하하고 있다면, 그 생각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깨닫고 이를 물리쳐야 한다.

절망하는 영에 저항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더 강한 자살과 살인 마귀가 자살하라고 당신을 설득하려 할 것이다. 자살을 충동하는 음성이 들릴 때 이를 어떻게 저항해야 하는지 모를 때 이를 듣는 사람은 마귀의 권유에 설득 당해 실제로 자살할 계획이 있지 않았을지라도 이를 따라 자살하게 될 수도 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영적으로 갇힌 사람들을 해방시키려 이 땅에 오셨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과 남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그 영에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성경의 지식이 없는 원수 마귀의 파괴적인 음성을 식별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죄에 빠질 수 있다.

yonghui.mcdonald@gmail.com

연약한 믿음과 죄악 된 삶은 마귀에 붙들려 있는 원인될 수 있어 하나님경외 모르고 성경지식 없으면 마귀의 파괴적 음성식별 실패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을 가질 때 강하게 되고 괴롭히는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면 이를 처리해 버릴 필요가 있다.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여쭙라.

(2)혼란의 영

악마가 괴롭히는 또 다른 방법은 영의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마귀가 예수님께 세상을 보여주면서 사탄에게 절하게 시키려고 설득했다. 어떤 사람은 영의 세계를 듣기만

은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비난하는 영은 사람을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자신을 증오하는 감옥에 가두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난하는 음성에 맞서는 법을 배울 때, 그들은 고통스러운 생각에서 자유를 찾을 수 있다.

애석하게도,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이 비난하는 소리로 고통 받고 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해서 사람을 비난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란 느낌이 들게 만든다. 우리는 왜곡된 음성을 믿는 게

(9면에서 계속)

오직 주 예수님만 의지해 그분의 말씀을 고요히 따르면 기적이 나타나고 새 역사가 나타남을 구구절절이 소개함으로 다시 한번 결단해 주님과 함께 생을 이끌어 가야함을 강하게 도전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설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타락 그리고 구원의 세밀한 과정과 전도의 말씀들을 해당 성구들과 함께 자세하, 그리고 또 그림과 같이 소개하며 참석했던 다민족 특히 중국인들에게 시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제시했다. 중국어로 모든 전도과정을 번역해 아나운서 출신인 중국 교우 니

나로 일일이 읽게 함으로 많은 중국인들이 예수 영접기도를 따라하게 해 구원의 기회를 충분히 갖도록 했다.

이번의 성회는 강사의 철저한 준비가 영상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설교 마지막에 보여준 영상을 통해 결단을 하게 함으로 오래도록 머리에 남아 계속 잊지 않고 은혜를 받게 하는 큰 장점이 있었고, 잘 아는 노래와 복음찬송을 개사해 덧붙임으로 자연히 은혜가 꽃노래로 나오며 끊임없는 은혜의 길로 인도함 받게 했다.

또한 이웃의 6개 교회 담임목사들이 기도와 축도 순서를 담당했다.

한편 성회 3-4일 전 도착한 강사부부와 JAARS 센터를 방문

해 CEO인 WOODY MCKLENDON 회장 부부의 영접을 받고 그의 안내와 배려로 WYCLIFF 성경번역 과정을 세밀히 소개받았다.

이어 후원기관인 비행기 수리와 정비소를 그리고 박물관을 방문해 LANGUAGE TREE에서 나타난 세계 모든 언어의 뿌리와 가지들을 보면서 한글의 위대함과 세종대왕의 모습을 보고 세계에서 차지하는 한글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다음날 BILLY GRAHAM TRAINING CENTER를 방문하여 깨끗하며 기념된 훈련 센터에서 진행되어지는 과정과 시설을 돌아보고 이제 막 물들기 시작한 단풍의 아름다움을 만끽하



샬롯장로교회 부흥회 강사부부와 나성군 담임목사(맨왼쪽)가 JAARS 센터를 방문해 WOODY MCKLENDON 회장 부부와 기념촬영 했다.

면서 앞으로 강사가 한국에서 지을 선교 센터의 건축과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였고, BLACK MOUNTAIN에 있는 한국에서

은퇴한 선교사 마을을 돌아 보고 지금도 선교사 자녀들로 운영되는 CHRISTIAN FRIENDS OF KOREA(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사무실을 방문하여 결핵 퇴치와 우울 파주기 사업을 통하여 끊임없이 북한 동포를 도우며 선교하고 있는 그들의 사랑과 끈기에 많은 도전을 받고 돌아왔다.

셋째 날은 BILLY GRAHAM LIBRARY와 S.I.M.선교본부 그리고 GORDON CONWELL 신학교 샬롯 캠퍼스를 방문해 선교와 후진 양성의 과정과 현실을 보며 많은 참고와 도전을 받았다. 샬롯에서 얻은 교훈과 간접 경험을 안고 떠나게 된 강사 내외를 성회가 다 끝난 주일 저녁에도 끝내 잊지 못하는 교우들은 늦은 시간까지 담화하며 헤어질 줄을 몰랐다.

(기사제공: 샬롯장로교회)

“새롭게 선포되는 21세기의 천로역정”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성은 있습니다. 천성에 가야합니다. 누구나 짧던 길던 이 세상에서 일생이라는 여정을 끝내면 영원한 곳에서 살게됩니다.

김성국 목사가 방향하는 이 시대에 전하는 하나님의 뜻!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천성 가시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대답하셔야 합니다.

지은이
김성국



저자 김성국 목사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을 유독 더 알차게 48시간처럼 살아간다. 예수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복음보다 긴급한 것은 없어 보인다.

이른 새벽 누구보다 일찍 하루를 열고 기도와 묵상과 심방과 설교준비까지 빈틈없는 일과가 일상화된 루틴 같지만 늘 새로운 도전과 하나님의 품 앞에 설려어 한다.

여러 언어의 민족이 각각 예배를 드리며 또한 연합으로 서로를 섬기는 다민족 예수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성도와 함께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를 즐겨 찬양하며, '어머니'란 말 앞에 늘 눈시울이 붉어진다.

때론 어린 아이처럼 순진무구한 모습으로, 때론 선한 거짓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으로, 때론 '복음 앞에 오직 승리'하는 전략가의 지밀함으로 그의 일상은 영성을 노래한다.

-편집자 주 -

히즈핑거 (His Finger)

책에 대한 문의는 히즈핑거 이메일 hisfinger8386@gmail.com 또는 전화 (718)886-4040, (323)665-0009로 연락해 주세요.

천주교장로회 담임목사
동부개척장로의 신학교 학장
미주크리스천신문사 사장
담배 TV 이사
(전) 해전대학 교외 담임목사
(전) 해전대학 교수 및 목회실장

총신대학교 (B.A)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고든콘웰 신학대학원 (Th.M)
고든콘웰 신학대학원 (D.Min)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인/터/뷰

세계선교교회 '지역을 섬기는 바자회' 개최

“하나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갈 은혜의 잔치되길”

세계선교교회(담임 장덕재 목사, 927 S. Menlo Ave. LA)는 지난 10월 2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본 교회 파킹장에서 지역을 섬기는 바자회를 열었다.



세계선교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바자회를 개최했다. 사진 좌측위 위안은 본교회 장덕재 담임목사

“지역을 섬기는 바자회는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은혜의 잔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게 됐다”고 말하는 장덕재 목사는 “지난 2012년부터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 바자회다.

바자회에 대한 교인들의 반응은 매우 좋다고 말하는 장 목사는 “바자회를 통해 교회에 소홀했던 교인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는

초청 잔치가 되기도 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이 된다”고 기쁨을 토로했다.

이번 바자회를 앞두고 준비위원들의 노고가 많았다고 한다. 전단지 제작해 교회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바자회 타이틀 그대로 ‘지역을 섬기는 바자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며 바자회 당일 8개 부스에서 의류와 과일, 그리고 과일주스와 LA갈비 등 먹거리를 판매했다.

장덕재 목사는 “바자회를 열 때마다 갖게 되는 바람은 변함이 없다. 우리의 잔치를 넘어 지역사회와 연결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그동안 우리와 교류가 없었던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는 바자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바자회를 통해 5명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1인당 1000달러)이 지급된다.

자세한 것은 (213)388-1927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원로칼럼

에필로그-더 하고픈 말(상)



박종순 목사 (총신교회 원로)

1)내 목회는 낮추고 네 목회를 배워라

내가 나를 보고 배우는 일은 드물다. ‘공감’지 2014년 9월 22일자에 실린 최경호 기자의 글이 떠오른다.

만진 데 이어 검지로 턱과 모자 챙을 잇달아 터치한 뒤 왼손 검지를 왼뺨에 갖다 대면 치고 달리기 사인이다’ 라면서 상대를 속이려 다 간파당하는 비율도 20%라고 했다.

야구선수 감독의 사인을 읽고 전략을 결정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한다. 야구는 감독의 사인도 있고 선수끼리 주고받는 다양한 신호들이 있다.

필자는 경청을 위해 노력한다. 경청은 소통의 기본이고 성공전략이기 때문이다.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제 말만 떠벌리는 사람, 남이 한 일은 거들떠보지 않고 자기가 한 일만 광고하려는 사람, 그들은 모두 답답한 사람이다.

필자는 남의 설교를 경청한다. 부목사나 전도사의 설교도 경청한다. 이유 하나는 배울게 많기 때문이고, 둘은 격려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이고, 셋은 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의 선포이기 때문이다.

2)대물림을 하라

요즘 교단마다 핫이슈가 되고 있는 세습목회는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좀 더 고찰과 성찰 작업이 필요하다. 필자는 세습할 뜻이 없다.

세습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한 면은 거대한 자산, 시설, 기관, 돈을 물려주려는 시도다. 이견 옳지 못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의 3대 세습엔 침묵하는 사람들이 교회 세습에 열 올리는 것, 그리고 기어이 내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며 무리수를 두는 것도 삼가야 한다. 제사장의 자식이 제사장이 되는 것은 성경이 밝힌 전통이다.

모 종편TV 정치대담 진행자인 강 모 씨, 그는 전직 국회의원이었다. 그의 아들은 중학교 2학년이 재학 중인데 소년의 꿈은 정치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

jj46923@gmail.com

소외계층에 양질의 의료혜택 제공 힘써

이웃케어클리닉 연례기금모금 만찬 400여 명 참석

이웃케어클리닉(Kheir·구한인건강정보센터, 소장 애린 박)의 설립 33주년 기념 연례 기금모금 만찬이 지난 23일 LA다운타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10월 24일 오후 6시30분에 성황리에 열렸다.

(Leadership Award)을, 타코트릭 ‘고기(Kogi)’를 런칭하며 푸드트럭 신화를 쓴 셰프 로이 최가 ‘혁신상(Innovation Award)’을 수상하며 자리를 빛냈다.

또 황인상 LA총영사관 부총영사, 보니 이 한미은행 행

장, 존 헵 전 거주재무장관, 미겔 산티아고 거주하원의원, 마크 리틀리-토마스 LA 카운티수퍼바이저, 허브 웨슬리 세디오 LA시의원, 지미 조 남가주가스컴퍼니(SoCal Gas Company) 최고운영자(COO) 등 450여 명이 참석해 이웃케어클리닉의 기금 모금에 힘을 보탰다.

애린 박 소장은 “의료 및 건강보험 시스템 변화, 정부 지원 혜택 제한, 이민 규제 강

화 등으로 저소득층과 이민자, 소외계층 등이 불안하고 어수선한 시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웃케어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러분이 보내는 관심과 지원, 후원에 힘입어 이웃케어는 앞으로도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이웃케어클리닉)



이웃케어클리닉 설립 33주년 기념 기금모금 만찬 및 시상식에서 애린 박 소장(오른쪽에서 6번째부터 왼쪽으로)과 ‘혁신상’을 수상한 셰프로, ‘리더십상’을 받은 피오나 마 거주재무장관, ‘업적상’을 수상한 노광길 한미은행 명예이사장이 참석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의료 혜택 제공(Increase Access to Health Care)을 위한 노력’을 주제로 열린 이날 만찬에는 첫 한민은행 설립을 통해 한민경제 발전에 기여한 노광길 한미은행 명예 이사장이 ‘업적상(Legacy Award)’을, B형 간염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앞장서는 등 보건 및 의료 개선에 힘쓴 피오나 마 거주재무장관이 ‘리더십상

Midwest University advertisement featuring a large image of the university campus, text in Korean and English, and a table of degree programs including ESL, Bachelor, Master, and Doctoral options.

영어로 보는 성경 (41)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Malachi 3:6,7

6) "I the Lord do not change. So you, the descendants of Jacob, are not destroyed.
 7) Ever since the time of your ancestors you have turned away from my decrees and have not kept them. Return to me, and I will return to you," says the Lord Almighty.
 "But you ask, 'How are we to return?'"

(NIV 2011)

WORD & IDIOM

*descendants: 자손들 *destroyed: 소멸된, 파괴된 *ever since~: ~이래 계속 *ancestors: 조상들
 *turn away from ~: ~부터 돌아서다, 외면하다 *Almighty: 전능한

GRAMMAR

6) "I the Lord do not change."

"나는 주(主) 변하지 않는다."

So you, the descendants of Jacob, are not destroyed.

그러므로 너희는 야곱의 자손들 소멸되지 않는다 ⇒ 주(主)인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인 너희는 소멸되는 않는다.

* I the Lord do not change.

이 문장에서 <the Lord>는 주어인 (I)가 누구인지를 보충 설명을 해준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the Lord> 앞뒤에 <the Lord>와 같이 콤마를 찍지만 여기서는 생략되었다. (I, who is the Lord, do not change)에서 (who is)가 생략된 것으로 보면 이해가 쉽다.

7) Ever since the time of your ancestors

너희 조상(들)의 때부터 계속해서

you have turned away from my decrees

너희는 돌아서(외면해) 왔다 나의 규례로부터(규례를)

and have not kept them,

그리고 그것을 지켜오지 않았다. ⇒ 너희 조상(들)의 때로부터, 너희는

나의 규례를 외면하고 지켜오지 아니 하였다.

Return to me, and I will return to you,"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says the Lord Almighty.

전능한 주가 말한다.

"But you ask, "How are we to return?"

그러나 너희는 묻는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나? ⇒ 내게 돌아오라.

그러하면 나는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주(主)인 내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나'고 묻는다."

* <You have turned>와 <have not kept them>는 둘 다 현재완료형 문장이다. <and>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have not kept them> 앞에 주어 <you>가 생략되었다. * <Return to me>와 같이 명령문 다음에 오는 <and>는 <그러면, 그리하면> 등으로 해석한다.

* <says the Lord Almighty>는 <the Lord Almighty says>가 도취된 문장이다. 이는 직접 인용문 다음에 오는 문장, 즉 <누가 말하였다>라는 내용의 문장은 <동사 + 주어>의 어순으로 도치시켜야 하는 문법에 따른 것이다. * <Almighty>에서 대문자 <A>를 쓴 것은 주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 <How are we to return?>는 <be+to+동사의 원형>의 뜻을 가진 의문형 문장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묻고 있다.

STUDY & THOUGH

■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 때부터 시작되어 끊임없이 계속된 것이었다. 이로부터의 참된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음을 당연하다. 이제 하나님의 규율에 어긋나고 영혼의 길로 나아가는데서 방향전환을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최우선 과제였다. 그러나 7절에서의 그들이 반문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는 내용은 참된 회개를 위한 질문이 아니었다(행 2:37과 비교).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악과 불의를 인정치 않으며 또한 회개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한 것이었다.

■ God is waiting for us to return.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견디는 자가 이긴다(약:12-13)찬73장

야고보는 고난 속에 생겨나는 시험을 돌로 나누어 이기는 길을 다시 강조합니다. 첫째,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첫째, 시련(12) - 헬라어 페아라스모스, 시련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연단시킬 목적으로 주시는 고난입니다. 요셉이 당한 섭리적 고난을 가리킵니다. 둘째, 유혹(14-15), 도키모스는 사탄이 죄를 범케 하려고 던지는 고난입니다. 이 둘은 한 사건 속에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당하신 유대광야에서 우리는 그 두 요소를 발견합니다. 둘째, 견디는 자가 이긴다(12). 야고보는 시험을 이기는 길이 바로 견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 상황에서 주님이 주신 인내를 의식을 갖는 것이고 그분이 친히 그 뜻을 세우심을 믿고 침묵과 단련하는 것입니다. 주권주의자만이 모든 시험을 이깁니다.

화 욕심(약:14-15)찬259장

자아, 육신, 육체, 옛사람, 정욕 그리고 욕심 등으로 묘사된 욕(살크스)은 신자가 대적해야 할 최대의 원수입니다. 사탄이 그 욕을 통해 항상 우리를 유혹해 죄를 짓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시험이 몰려옵니까? 첫째, 미혹에 쉽게 끌립니다. 부패성을 자극시키는 사탄은 미혹의 영입니다. 욕심이 시동을 걸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도록 의지적 결정을 하게합니다. 둘째,

죄를 낳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르게 함으로 죄를 짓게 합니다. 많은 탐욕은 많은 죄를 낳습니다. 셋째, 사망을 부릅니다. 그 죄는 하나님만으로도 사망을 가져옵니다. 마침내 죄된 사상, 죄된 습관, 죄된 인격, 죄된 운명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사람을 따라 믿음으로 나갈 때만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수 신자의 신분을 알 때 이긴다(약:16-18)찬258장

고난 속에 당하는 절망과 교만은 신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알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첫째, 모든 은사가 아버지께로 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17). 좋은 것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구하며 나쁜 것에는 주의 숨은 뜻을 구하며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둘째, 그는 변함없으신 신실한 아버지이

십니다(17). 우리는 신실한 아버지를 둔 신실한 자녀임을 알고 그의 신실한 약속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때 물려온 은갖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 그는 진리로 낳아주시는 우리의 친아버지입니다(18). 그리고 우리는 진리인 그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 생명은 우리로 모든 유혹과 사망을 이기게 합니다.

목 지혜로운 삶(약:19-20)찬50장

신자는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세우기 위해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입니까? 첫째, 듣는 것을 속히 해야 합니다. 무엇을 속히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속히 듣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모든 일에 지혜를 얻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웃의 말을 잘 알아 도움을 줄 수 있습

니다. 둘째, 말하는 것을 더디하라고 가르칩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셋째, 성내는 것도 더디 해야 합니다. 성냄은 자기중심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자가 신령한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울 수 있습니다.

금 말씀을 받는 방법(약:21-22)찬288장

고난당하는 성도는 말씀을 잘 받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그때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잘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 영적 오물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는 자가 복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의 길을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겸손히 믿어야 합

니다. 거듭날 때 성령이 심겨놓은 말씀으로 변화된 새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말씀을 순종함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듣는 것이나 지식 축적이 목표가 아닙니다. 말씀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외식을 버리고 말씀화한 삶을 가진 사람이 진정 복됩니다. 그 길을 감시다.

토 말씀묵상의 효력(약:23-25)찬289장

야고보는 마음에 심긴 말씀의 효력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묵상할 때 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어떻게 묵상해야 합니까? 첫째, 행함을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23). 말씀이 지배하는 삶이 성령충만이다(엡5:18, 골3:14). 둘째, 복음을 항상 들려다 보아야 합니다(25). 여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복음입니다. 복음인 성경을 진실 된 마음으로 항상 들려다보

는 묵상, 곧 듣고, 읽고, 적용함으로 나의 모든 생각과 생활에 중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묵상 행위 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말씀의 지침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25). 묵상은 행함을 포함합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말씀에 뿌리를 내려 말씀으로 전인화 하는 것이 진정 복입니다. 말씀묵상의 삶만큼 복된 것이 없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p>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1)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p>	<p>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택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동 870-10호</p>					
<p>금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동구 광운동 340-1(131-231)</p>	<p>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아침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p>	<p>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076(교우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p>	<p>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3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점심예배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2)422-075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p>	<p>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5:00 새벽기도회: 오전 6:3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6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520 (158-808)</p>	<p>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96-9968, Fax. 9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p>	<p>성일교회 담임목사: 윤상욱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 3길 713-26호</p>
<p>수정교회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p>	<p>승중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 137 번지</p>	<p>시은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리동 419-2</p>	<p>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842-1968, 새벽(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50-051)</p>	<p>신천교회 담임목사: 박영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3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14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백석동 219 (151-암살동) www.shincheon.org</p>	<p>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30 Tel. (82)2-3142-8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www.estincheon.org</p>	<p>안암 제일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도회: 오후 8:00 Tel. (82)2-926-4508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시로3길 50-1 www.anamjeil.or.kr</p>
<p>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월-토/일)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암로 415 www.yangok.org</p>	<p>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p>	<p>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142-6881, Fax. (02)1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p>	<p>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294-1(1403-838)</p>	<p>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주일6부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p>	<p>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최현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일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정동 259-12</p>	<p>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0:00 주일5부예배: 오전 11:30 주일6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p>

아시아 여성들, 자기 목소리 찾아가다

이코노미스트, 만연한 성폭력에 맞서는 아시아 각국 여성들 사례 소개

지난 달, 네팔에서는 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다. 네팔의 국회의장인 크리슈나 바하두르 마하라가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을 폭행했다는 내용이였다. 그러나 이후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고 여성은 협박과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고소를 취하였다. 남아시아에서는 전형적인 사건의 전개였다. 남성, 특히 권력을 가진 남성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UN과 현지 외국 대사관들은 네팔정부에 여성대상 폭력에 조치를 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며칠 후 사임한 마하라 의장은 이번 주에 경찰에 체포됐다.

이번 사건으로 이 지역 여성들이 처해있는 비참한 환경이 어느 정도 개선될 계기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여성에게 폭

력을 휘두르는 남성들이 사회활동에 별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흔한 일이기 때문이다. 작년에 인도에서는 의회 및 지방의회 의원 48명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혐의를 받거나 기소를 당했다는 기록도 있다. 심지어 여성이 이끌고 있는 당 소속 의원들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이코노미스트'는 "만연한 폭력에 맞서는 아시아 각국의 여성들" 제하로 현 상황을 고발했다(The struggle of Asian women not to be abused: The speaker of Nepal's parliament has been arrested. Few other powerful Asian men are held to account).

를 받아야 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중국에서 배우자 학대는 흔

들에 대한 일련의 약물 투여와 강간 사건으로 얼룩져 있다.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에서

하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아시아의 여성들은 목소리를 찾아가는 중이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미투 운동과 같은 형태의 움직임이 의료 공장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신고할 것을 설득하는 것부터가 어려운 일이다.) 지난 1월, 파키스탄에서는 변호사들이 "더는 참지 않겠다(Ab Aur Nahin, "Time's Up")"는 이름의 온라인 포털을 만들고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대한 무료 법률 서비스 제공에 나서기도 했다.

필리핀에서는 여성들이 강간과 추행을 자주 농담의 소재로 삼는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해 소셜미디어와 거리에서 불만을 표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국민들이 독재자에게 맞서는 일 자체가 드문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한국에서도 더 많은 여성들이 정부와 재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권력자들에게 맞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남아시아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선별적 낙태라는 형태로 뱃속에서부터 시작된다. 태어난 여성의 운명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다섯살 전에 사망하거나, 학교에서 중퇴할 확률이 남성에게 비해 높다. 성인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하거나, 배우자에게 구타를 당하는 일도 많다.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인도에서 지참금 관련 다툼으로 사망한 여성은 4만 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카슈미르 분쟁, 북동부 반란, 공산주의 무장 게릴라 운동으로 발생한 사망자를 모두 합친 수보다 더 많다.

법과 사회 인식이 달라지고는 있지만 충분치 않다. 2012년 델리에서 발생한 끔찍한 집단 강간, 살인 사건은 인도

중산층을 큰 충격에 빠뜨렸지만 시골에서 일어나는 성폭행 사건들은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차별도 만연하다. 올해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음란 녹음물을 만들어 품위를 떨어뜨린 죄로 전직 교사에게 유죄를

남아시아, 선별적 낙태로 뱃속에서부터 여성차별 시작 신고조차 되지 않아 통계 못믿어..3명중 2명 폭력경험

대부분의 성폭행 사건은 신고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통계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살면서 폭력을 경험하는 여성이 세 명 중 두 명꼴이라는 것이다.

신고했다. 이 여성은 상사가 자신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행을 일삼자, 이를 증명하기 위해 상사의 말을 녹음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대통령 사면으로 방면될 때까지 고초를 겪어야 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여성 경찰, 군인 지방생들이 자신의 처녀성을 "증명"하기 위해 어처구니없는 신체검사

한 일이지만 탈출은 쉽지 않다. 가정폭력에 맞서 싸우는 활동가들조차 국가의 괴롭힘 대상이 되곤 한다. 캄보디아에서는 TV 드라마의 3분의 1이 여성에 대한 신체적, 성적, 감정적 학대를 그리고 있다. 이런 현상이 빈국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한국의 케이팝 산업은 여성

는 매년 수천개의 몰카가 적발되지만, 누군가가 처벌받는 일은 거의 없다. 최근에는 종합병원에서 일하던 여성이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물이 널리 퍼지자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최근 들어 아동 성범죄를 포함해 성범죄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제서야 신고

이들은 동시에 "탈코르셋 운동"을 통해 직장에서 여성에게만 화장을 의무화하고, 때로는 안경 착용조차 금지하는 관행 등으로 나타나는 한국 사회의 엄격한 미의 기준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러한 운동이 남성에 대한 억압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공격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시아 여성들에게 평등은 차치하고 서라도 안전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한 투쟁인지 드러내는 사례일 것이다.

책소개

"메밀꽃 피는 언덕"

저자 심의례 전도사



암환자 모임인 새생명선교회 대표 심의례 전도사의 자전적 수필집 "메밀꽃 피는 언덕"이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부제를 달고 최근 콤팩트판사에서 출간됐다.

강원도 산골에서 9남매의 막내로 태어나 어릴 적 동네에 생겼던 교회에 다니던 일부터 기도를 열심히 해 초등학교 시절에 방언을 받은 이야기 등 신앙 여정을 진솔하게 담아냈다.

심 전도사는 '신앙의 황무지 같은 가정에서 태어나 주님의 손을 잡고 달려온 인생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파스한 손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대로 받지 못했고 결혼 후에는 남편 사랑도 받지 못했지만 시골 소녀가 서울 왕성교회(당시 담임 길자연 목사)에서 뉴욕 퀸즈장로교회(당시 담임 장영춘 목사)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께 거듭 감사를 드린다면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 손 꼭 잡고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길자연 목사는 심 전도사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며, "가시밭

'주님과의 동행' 으로 일관된 자전적 수필집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여호와와 함께, 에벤에셀의 하나님 은혜"라고 감격한다. 또 심방전도사 34년 사역을 마치고 다시 새롭게 암환자 사역을 14년간 이끌게 오게 하신

인생길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간섭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취였다"고 추천했다. 김성국 목사(퀸즈장로교회 담임)는 "하나님 안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매우 흥미진진해

책을 읽는 동안 하나님을 높이고 되고 심 전도사님의 사역이 정의와 사랑으로 묶여있는 이유를 알게 한다"고 추천했다. 이외에 이희삼 목사(한인동산장로교회), 황규복 장로(몽아일랜즈성결교회), 정인국 장로(소아과 원장) 등이 추천사를 썼다.

책은 '메밀꽃 필 무렵', '닭똥 같은 눈물만 똑똑 흘리며'부터 '내고향 강원도 평창'까지 59개의 소제목으로 단 이야기를 실었다. 총 222페이지. ▲저자연락처: euilae2005@gmail.com (유원정 기자)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